

서울시, 지원으로 외국인 관광객 전용 택시 호출 앱 출시

서울에서 외국인 택시 호출? 손쉽게 타바(TABA)!

서울시가 개발 지원한 외국인 관광객 전용 택시 호출 모바일 앱 'TABA(타바)'가 12월 1일 정식 출시됐다.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택시 호출 서비스의 제한적인 상황을 인식하고, 2022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용 택시 호출 서비스 개발하는 관광세탁사업과 민간기업의 협력사업을 지원해왔다.

이번에 출시되는 'TABA(타바)' 앱은 해당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택시 호출 서비스 '터미나onda'와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관광정보 추천 B2B 기술 보유 새싹기업인 '글로벌리어(GLOBALEUR)'가 협력한 것으로, 작년 말 기술개발을 시작하여 올해 정식 출시됐다.

'TABA(타바)' 앱 출시를 통해 국내 택시 호출 서비스의 한계점이 해결되어, 외국인 관광객들도 손쉽게 택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국내 택시 호출 서비스의 경우 국내 이동통신사를 통한 본인인증과 국내 발행 카드 위주의 결제방식 등 제한적인 서비스로 외국인 관광객이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TABA(타바)' 앱은 외국인 관광객이 본국에서 사용하던 전화번호로 인증하며 해외 카드 결제 또한 지원한다. 연말까지는 사회관계망(SNS) 간편 로그인과 이메일 인증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관광객이 목적지를 입력하면 실시간 교통상황을 반영한 거리 및 요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추천경로·최단경로·통행료 면제 경로 중 선택이 가능하다. 택시 유형도 중형, 대형, 고급 택시 중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

서비스는 영어, 중국어(간체·번체), 일본어, 태국어의 총 5개 언어로 제공한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TABA(타바)'는 외국인 관광객의 택시 호출 뿐만 아니라 주요 관광명소를 소개하는 기능을 탑재해 개별 관광객의 편리한 서울여행을 돕는다.

최근 유명 이동서비스 대기업들이 국내 외국인 택시 호출 서비스를 시작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광세탁사업 지원사업으로 출시된 'TABA(타바)' 앱의 가장 큰 차별점은 서울 내 관광명소 정보를 앱에서 함께 제공하는 것이다.

앱에서 약 200여 개의 서울 주요 명소를 소개하며, 외국인 관광객이 해당 관광 명소를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앱 하단의 '지금 여기로 이동' 버튼을 누르면 해당 명소가 목적지로 자동 설정된다.

앱은 구글 플레이(안드로이드)와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출시를 기념하여 첫 번째 이용에 한하여 택시요금 5% 할인 서비스를 진행한다.

앱을 다운로드한 후, 계정을 생성하면 자동으로 할인 쿠폰이 적용되어 누구나 간편하게 5% 할인된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앱 출시를 외국인 관광객 편의 개선은 물론 대기업과 새싹기업이 협력한 좋은 사례"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관광세탁사업과 유관기업 간 상생협력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관광산업 분야에서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 윤석열 대통령, 기부·나눔 단체 초청해 나눔 실천 참석자에 대한 감사 인사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 전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4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14개 기부·나눔단체 관계자 및 기부자 등을 초청해 각 단체에 성금을 기부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행사는 대통령이 직접 나눔 실천 및 확산에 참여하고 있는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표를 표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14개 단체의 특색이 담긴 기념부스에 성금을 기부하고, 함께 기념촬영을 하며 각 단체의 노력에 감사 마음을 전했다. 각 단체는 공인형(구세군), 반지(유니세프), 단주(아름다운 동행) 등 단체별 특색 있는 상징품을 선물하며 대통령의 감사에 화답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참석 단체 관계자 및 기부자들의 봉사 경험 및 소감 발표가 진행됐다.

고두심 굿네이버스 나눔대사는 인생에 가장 잘한 일 중 하나가 봉사활동에 뛰어든 것이라며, 봉사는 나 스스로를 관주세우는 일이라고 말했고, 소유진 대한적십자사 홍보대사 역시 봉사는 결국 자기 마음이 단단해지는 일이라며 자녀들에게도 이를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

유형주 한국해비타트 이사장은 독립유공자들의 집을 고쳐드리는 봉사활동을 소개하며 대통령이 보존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시켜 준 것에 감사를 표했고, 최창진 KBS 기자대행의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이선영 KBS 아나운서는 지진 피해를 겪은 튀르키예를 방문했던 일을 전하며 정부와 민간이 합심한 구호활동으로 현지인들이 한국을 형제의 나라로 부르며 반겨주는 모습에 감격스러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황영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은 소년소녀가장, 미혼모, 이주배경아동 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대통령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늘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여러분들을 뵈고 같이 자리하니 저도 마음이 훈훈해지고 아주 기쁘다"고 마음을 전했다.

대통령은 "민간에서 어려운 분들을 스스로 도와주는 것은 박애의 정신이고 이것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굉장히 중요한 힘"이라며,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고 또 나누고 베풀고 하는 박애의 정신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사회의 기초가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나눔과 기부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며 이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참석자의 소감과 관련하여 "교육 중에 제일 훌륭한 교육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또 함께 나누고 하는 것"이라며, "교육이라는 것은 사람을 만드는 것인데 사람을 만드는 데 그것보다 더 좋은 교육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은 또 "정부의 복지 제도도 우리 봉사 기부 단체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잘 보고 이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같이 채워나가면서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라며, "오늘 주신 좋은 말씀을 잘 새겨서 국정운영하는 데 꼭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참석자 한 명 한 명에게 악수로 감사와 격려를 표하며 행사를 마무리 지었다.

최광수/기자

경북도, 감염병 대응 유공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질병관리청 주최, 2023년도 감염병관리 콘퍼런스에서 우수 지자체 선정

경북도는 지난달 30일 질병관리청에서 주최한 '2023년 감염병관리 콘퍼런스'에서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관리에 노력한 그동안의 성과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감염병 신고, 예방 접종, 감염병 예방 행태 개선, 지역 협력 등을 통해 선정됐다.

경북도는 감염병 신고 기한 준수, 예방 접종률, 환경관리 수행과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감염병 예방 행태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해 왔다.

또 유기적인 감염병 대비·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내 감염병 유관기관과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그 성과와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올해는 경북도, 보건소, 교육청, 교육지원청 등의 협력으로 '감염병 예방 시범학교'를 예천동부초등학교에서 시작했다.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감염병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학부모를 통해 지역사회로 감염병 예방 실천 문화를 연계·확산시키는 데 큰 공을 얻었다.

제미자 경북도 감염병관리과장은 "이번 표창은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시군 보건소, 도내 관련 기관들이 모두 함께 노력해 준 결과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홍보와 협력을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이 안전한 경상북도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김동연지사, 경기도청압색 관련"괴롭히기 정치수사는 이제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해 검찰이 4일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펼쳤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 압수수색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불쾌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며 "참으로 개탄스럽고 참담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어 "도대체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이 나라가 검찰국가입니까. 검주국가입니까?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도지사로서 강력한 유감과 경고를 표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김 지사는 이번 비서실 압색 상황에 대해 "이날 9시 40분에 검찰에서 이제

것이라고 전했다. 김 지사는 특히 검찰의 이같은 수사는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불가한 과잉수사, 괴롭히기 수사, 정치수사"라면서 강력히 비판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그는 "이번 압수수색은 철 지난 재탕, 삼탕의 압색으로 경기도청에서 가장 활발하게 심 그 일을 해야 하는 곳이 도지사의 방이고 그 지사를 보좌하는 곳이 비서실인데 도청 업무가 마비돼 어떤 일도 처리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경기도청이 받는 이 업무방해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가? 1400만 도민들은 도대체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고 분개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건 인 법카사용 관련해서도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나름 협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하고 장기간에 걸쳐 조사한다는 것은 오랜 공직생활을 해온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며 도청 공무원들이 받는 심리적 위축 및 압박으로 적극행정이 아닌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몰아붙이는 이런 상황 등은 우리 공직사회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덧붙여 "경기도공무원들은 먼지털이식 저인망 수사를 언제까지 감내해야 하는 것인가"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동연 지사는 "이번 수사만 해도 총선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가? 검찰은 선택적 수사를 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형평성을 무너뜨려도 되는 것인가? 이처럼 무도하고 형평에 어긋나

는 행위는 대한민국 검찰이 할 일이 아니다"라며 이는 명백한 정치수사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연 경기지사는 "도청 직원 여러분들은 잘못이 없다. 당당하게 의연하게 대처하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도를 넘은 검찰수사와 직원들에 대한 괴롭히기 수사, 불공정한 정치수사는 이제 중단해야 한다"고 재차 강력한 유감과 경고를 표했다.

김병삼/기자



# 경북도의회 박규탁 의원,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지향상·사기진작으로 도민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

경북도의회 박규탁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월 22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규탁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소속 공무원 중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 5일을 부여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사기진작을 통한 도민행정서비스 향상 도모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 가산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이 선호하는 직장으로 2021년에는 대기업, 공기업, 국가기관이 각각 21%를 차지한 반면, 2023년에는 대기업이 27.4%로 상승하고 공기업과 국가기관은 각각 18.2%, 16.2%로 선호도가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3년 미만 퇴직공무원은 전체공무원 기준, 2020년 5,938명에서 2022년 8,492명으로 4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규탁 의원은 "불과 3~4년전만 해도 공무원은 청년들의 장래직장 선호도가 높았으나, 하위직 공무원의 낮은 연봉과 악성민원, 조직 문

화 등으로 인해 공직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많은 젊은 공무원들이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다"면서 "초임 발령받은 젊은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복지제도 개선 차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도 휴가가 지급되어야 한다"라고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피력했다.

또한, 박 의원은 "각 시·도의회에서도 조례의 개정을 통해 장기재직휴가 제도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도내 시·군의회에서도 제도개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조례의 제정을 통해 경북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근속 유도 및 이를 통한 도민행정서비스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11일,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 아산시의회, 제2회 추경 예산 1조 9,025억 원 최종 확정

### 일반회계 7건 / 1억 3,412만 6천 원 삭감

아산시의회는 4일 제24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 예산은 1조 9,025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7,026억 원, 특별회계 1,999억 원이다.

시의회는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서의 추경 예산안을 심사했고, 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추경 예산안을 심사 의결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7건, 1억 3,412만 6천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했으며,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했다.

추경 예산안 요구액 중 감액된 사업 7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6건, 8,963만 원으로 △아산특목 문자메시지 이용료 △시군평가 유공공무원 포상 △읍면동 종합평가 시상금 △친절행정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폭염피해 보상지원 △RPC에너지절전시설 지원 등이 삭감됐다.

또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은 1건, 4,496만 6천 원으로 △항만기본계획 반영 타당성 조사가 삭감됐다.

김은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금 변동 사항과 올해 안에 마무리가 가능한 준공 예정 사업에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하고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과 추경 예산은 삭감 조치했다"고 전했다.

김원호/기자

# 박영한 서울시의원, "불법 숙박업소의 천국이 된 서울"

### 서울시 '불법 숙박업소' 적발... 전체의 2% 수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제32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불법 숙박업소의 문제점과 대응책'에 대해 질의했다.

박영한 의원은 '숙박업소 등록 플랫폼'에 등록되지 않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며, 민박업의 새로운 형태가 등장하면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허가받지 않은 불법 숙박

업소는 1만 6천개로 파악됐다. 이중 지난 5년간 346곳의 업체만 적발됐는데, 전체의 2%에 해당하는 저조한 수치이다.

반면, 일본은 불법 숙박업소를 양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었보인다. '민박업 등록 번호가 없는 숙소'는 플랫폼에 등록 자체를 할 수 없다. 이외에도 미국, 영국의 주요 도시는 숙박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시행중이다.

박 의원은 "불법 숙박업소의 큰 문제점 소방시설이 불량하여 투숙객의 안전에 위협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마약·성매매 등 사회악이 행해지는 아지트로 전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불법 숙박업소는 서울시에 가장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탈세 행위가 많을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가 목표로 하는 3천만 관광객이 방문하기 전에 불법 숙박업소를 양성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국회에 법률 개정 건의를 해야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최광수/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김창석 의원, 12월 4일 정책 토론회 개최

### "발달지연·장애아동의 첫 입학 적응 위한 예비학교 열린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국민의힘, 사상구2)이 주최하고 부산시장애인복지관협회가 주관하는 "미취학 발달장애·지연 아동의 입학 전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제도 확산 정책토론회"가 12월 4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대회의실(2층)에서 개최됐다.

이날 부산시의회 박종목 부의장을 비롯하여 교육위원회 신정철 위원장과 정태숙 의원, 부산시교육청 최은홍 부교육감, 부산시장애인복지관협회 이재영 회장,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선옥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으며,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2021년부터 10개의 장애인복지관이 진행하고 있는 '발달장애·지연 아동 학교 적응력 향상 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 확대를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창석 의원은 지난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달장애나 장애 가진 아동들의 초등학교 입학 전 학교적응을 위한 예비학교 프로그램 마련을 부산시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으며, 올해 3월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도 개정했다.

김 의원의 주제 강연을 시작으로 장애인복지관이 실시한 예비학교 프로그램 운영 사례발표가 이어졌으며, 이후 좌장인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윤성호 교수의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장애 자녀를 둔 보호자 연로사씨와 부산시교육청 정현우 장학사, 부산연구원 김두레 책임연구원이 참여했다.

특히, 장애 자녀의 첫 학교 입학을 앞둔 학부모의 고민과 학교적응을 위한 예비학교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많은 참석자들이 공감했고, 12월부터 시행되는 부산시교육청의 '입학적응 예비학교' 및 '단위학교별

입학적응 프로그램'의 낮은 실효성에 대한 대안으로 장애인복지관이 운영 중인 예비학교의 지속·확대 방안이 활발히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를 추진한 김창석 의원은 "예비학교 프로그램은 입학 결정 전에 진행되어야 자녀의 학교적응 가능성을 확인하고 특수학급 인입 여부, 학교 등을 선택할 수 있다"며, "발달지연·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의 정책 기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로 제한된 초등학교 입학 적응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 미국이나 스웨덴과 같이 특수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유-초 전환교육 또는 유-초 연계 활동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부산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정책 개선에 앞서 줄 것을 요청했다.

김희태/기자



# 광주시의회 안평환 의원, 도시철도2호선

### 민원 해결을 위한 상임위 예산 증액

### 민원해소 전문가 기술지원 3,000만원 증액

광주광역시의회 안평환 의원(북구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4년 본 예산 예비심사에서 민원해소 전문가 기술지원 사업비 3,000만원 예산 증액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민원해소 전문가 기술지원 사업은 도시철도2호선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를 통해 현장 확인 후 자문을 받는 형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로 인해 벽에 금이 가거나 건물이 기울어 등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인과관계를 피해자인 주민이 밝혀야 하는 부당함을 해결하기 위해 옴부즈만 도입을 주장했다.

안 의원은 2024년 본예산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들과 도시철도건설본부를 설득해 전문가들로부터 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 3,000만원을 신규 증액했다.

이 예산이 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과 14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주민들은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평환 의원은 "옴부즈만 도입

은 광주시 조직개편 및 공무원 정원 문제 등 당장 실현이 어려운 만큼 우선 도입할 수 있는 제도를 고민했다"며,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우선 내년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보완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수/기자



# 대구시 신청사 건립, 공유재산 매각과 연계 반대

### 이영애 대구시의원, 신청사 건립예산은 독립적 확보 해야, 공유재산 매각 연계 철회 촉구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교육위원회, 달서구1)은 11월 28일 열리는 대구시의회 제305회 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재원 마련'이라는 대구시의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신청사 건립을 위한 예산은 독립적으로 편성해 안정적이고 조속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 의원은 "민선 8기 출범이후 사업비용 마련을 위한 부지의 부분매각 논란으로 지연되어오던 대구시 신청사 건립사업이 최근 대구시가 부분 매각방향을 철회하면서 원안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재정확보의 조건을 달고

있어 사업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신청사 건립 사업은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재론의 여지가 없는 사업으로, 공유재산매각과 연계하겠다는 계획은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며, 5분 자유발언에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흥준표 시장의 주장대로 대구시의 재정 건전화도 중요하지만, 조속한 신청사 건립을 통해 연계 될 공익적 가치 또한 매우 큰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신청사 건립이 지연되면서, 비효율적인 지방행정이 장기화되고 있고, 행정결정에 대한 신뢰도 상당히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 사업지연으로 사업비용도 크게 증가하는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대구시의 공유재산 매각방침 발표 이후 각 지역에서는 특정 공유재산의 매각을 반대하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어 매각절차가 지연된다면, 신청사 건립이 또다시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의원의 생각이다.

이 의원은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매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대구시의 입장이라면 매각사유를 신청사 건립이라는 단일사업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고 있는 흥준표 시장의 각종 공약 사업을 포함해 주요 시책사업 전반의 추진을 위한 투자자용재원의 총괄적

확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영애 의원은 "지역사회가 오랜 기간 숙의해 어렵게 결정한 대구시청 신청사의 조속한 건립은 지난 20년간 끝없이 추락해 온 대구의 이미지와 지역의 활력, 그리고 240만 시민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신청사 건립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윤근수/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편집국장:최재은.부회장:임석경 청소년책임보도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문화매일신문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치부:내선 (112)	문화부:내선 (116)
광고국:1899.9659	사회부:내선 (113)	부동산부:내선 (117)
	경제부:내선 (114)	오케니언부:내선 (118)
	스포츠부:내선 (115)	지방부:내선 (119)

서울특별시 개봉로 12길 9-19 로얄홈타운 102동 202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담회 개최

### “초고령화 시대에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어야 할 것”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은 지난 1일, 경기도의회 사무실에서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 4차산업융합센터와 함께 사회복지서비스 산학협력에 대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노인돌봄, 장애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AI 반려로봇과 목욕 위생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현재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급격한 고령화로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진입이 전망되며, 1인 재가노인 및 요양보

호 대상자, 장애복지 대상자들의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를 목적으로 AI 반려로봇 및 휴대용 목욕 기계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AI 기반 반려로봇을 통한 노인 돌봄 대상자, 장애인 서비스 대상자 정서 교감과 함께 일상생활의 활력 증대로 서비스 대상자들의 질환을 사전 예방하고, 노인·장애인·환자 분들의 목욕 등 위생 관리를 위한 휴대용 키트 개발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질 향상과 서비스 대상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 도출과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정담회에 참석한 손원표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 4차산업융합센터장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나타나는 사회문제 해결방안을 위해 지자체, 기업, 협회 등의 지·산·학 협력과 상용화 및 관련 산업 활성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김재훈 부위원장은 “사회문제 해결형 실용적 상용화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간담회·조례개정·사업 운영 등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사회복지서비스 운영모형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완화 근거 마련

### 제 372 정례회 4차 본회의 (12월 4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로 통과됐다.

이 조례는 광고물과 입간판의 표시제한 및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시설치된 광고물의 현실화를 유도하고 간판의 표시방법 및 대상을 확대하여 옥외 광고물의 광고 효과를 제고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됐다.

명재성 의원은 “현행 조례가 다양한 건축물의 변화에 따른 건축주의 홍보 요구를 담아내지 못한 한계가 있다”며 “주상복합단지 등 대규모 상업시설의 고층화로 증가하는 광고수요에 대응하고, 공동주택 외에도 의료시설이나 교육연구

시설 공장 등에도 외벽에 주명칭 및 보조명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상공인의 전자계시대 사용기준을 마련하여 홍보를 통한 상권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광고물등의 바탕색에 적색·흑색류 사용제한 규정을 삭제했으며, 건물부지 안에 설치하는 입간판의 크기를 상향 조정했다. 특히 고층건물의 여건을 고려하여 벽면 이용간판의 설치기준을 현행 5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설치범위를 확대했다.

명재성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난립하는 옥외광고물을 기준과 원칙에 맞게 새롭게 정비하고 오래된 방치 광고물은 조속히 철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는 계기를 만들겠다”며 의미를 강조했다.

김범상/기자



# 한국-호주 교류 핵심인사 만남 김동연 지사, “신재생에너지 핵심광물 등 협력 강화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호주에서 '한국-호주 교류' 핵심인사를 만나 신재생에너지, 핵심광물, 바이오, 농업 등 폭넓은 분야의 협력 강화 의지를 교환했다.

김동연 지사는 28일 호주 시드니의 한 호텔에서 한·호 경제협력위원회(AKBC-Australia-Korea Business Council) 빌 패터슨(Bill Paterson) 국방분과위원장, 제임스 최(James Choi) 금융분과 위원, 데이브 녹스(Dave Noakes) 금융분과위원을 만났다. 특히 빌 패터슨 위원장과 제임스 최 위원은 주한 호주대사를 과거 역임한 데 이어 한국-호주 간 대표적인 민간 경제협력체 '한·호 경제협력위원회'에 소속된 한-호 교류의 핵심 인물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道(道)이자 경기 RE100을 선언하며 가장 적극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탈탄소, 핵심광물에 대한 호주와의 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데이브 녹스 금융분과 위원은 “호주도 투자 유치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한국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만)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이전 정부 때 조금 더 목표가 높았던 것 같은데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한국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기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한국의 새로운 정부는 탈탄소,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상당히 거꾸로 가고 있고, 여러 가지 계획들도 정부 임기 이후로 미루고 있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을 갑자기 바꾸는 점을 우려하며, 그런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경기도는 호주와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 확대나 협력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빌 패터슨 위원장은 “과거에는 호주가 한국의 에너지, LNG, 철광석, 석탄 등을 수출하는 단순한 공급자 관계였는데, 이제는 양국 다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수소 공급망이나 전기차 등 양국 투자총량 관계에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김동연 지사는 제임스 최 금융분과위원이 바이오, 농업, 국제학생 등에 대한 교류 확대를 제안하자 “지금 바이오클러스터를 경기도에 세 군데 계획하고 있어 대단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교육에 있어서는 올해 경기도 청년들을 시드니대학에 연수 보냈는데, 이러한 청년 교환 프로그램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며 “농업 분야는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고 한국은 농업의 혁신을 많이 필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동연 지사와 한·호 경제협력위원회는 전임 호주 정부 때 호주-중국과의 관계가 크게 악화됐다가 지난해 출범한 신정부 들어 복원되는 모습이 보인다고 언급하며,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에 어떤 시시점이 있는지 의견을 교환했으며 균형 잡힌 접근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1978년 설립된 한·호 경제협력위원회는 양국 간 대표적인 민간 경제협력체다. 핵심광물, 국방·우주, 교육, 에너지, 금융 서비스, 식품·농업, 건강·생명공학 혁신 등 7개 분과로 구성돼 양국의 경제 협력에 기여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기존 26~28%에서 43%로 상향 조정하고,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이 없는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밝힌 만큼 RE100(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선도 지자체 경기도와의 협력이 기대된다.

호주가 리튬과 니켈 등 배터리 관련 핵심 광물 보유국이자 한국의 광물자원 1위 공급국인 만큼 ‘케이(K)-배터리 중심지’ 경기도의 미래산업 견인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번 만남을 포함한 호주 일정은 김동연 지사의 호주 협력 강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월 13일 도청에서 캐서린 레이퍼(Catherine Raper) 주한 호주대사를 만나 “이번 만남을 계기로 호주와 한국이 천연자원을 넘어 정보기술(IT)과 4차 산업도 협력할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한·호 경제협력위원회 면담에 앞서 이날 오전 시드니시 소재한 뉴사우스웨일스주의 무어파크(Moore Park) 한국전철잠전비를 찾아 현화하며 호주 방문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현화에는 고남희 뉴사우스웨일스주 한국전 참전비 관리위원회 공동회장 등이 함께 했다.

김동연 지사는 “호주 첫 일정으로 한국전철잠전비를 찾은 것은 1천40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 감사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다”며 “호주와 캐나다를 비롯한 연연방연합국들이 가평전투에서 용감하고 치열하게 싸운 덕에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얻었다. 함께 민주주의를 지켰던 한국-호주 관계가 더욱더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어파크 한국전철잠전비는 호주 출신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추모하고 한국과 호주 간 우정을 기리기 위해 한국보훈처, 호주 정부, 호주 교포 등이 비용을 분담해 2009년 건립했다. 무어파크 내 약 200m² 부지에 조형물, 동판비문, 현화대, 국기 게양대 등이 조성됐다. 호주 정부는 2013년 국가적 의미를 지닌 기념비로 지정했다.

한·호 경제협력위원회 면담 후에는 이날 시드니의 한 카페에서 현지 학생들을 만났다.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연수대학 5곳 중 하나가 시드니대다.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더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한 민선 8기 대표 청년 정책으로, 도내 청년에게 사회적 격차 해소와 다양한 진로개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 대학 연수 경험을 지원했다.

김동연/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연구회, 지역별 소방활동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소방활동 출동요인별 유형화를 통한 맞춤형 지원방안 도출 주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연구회(회장 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는 4일 '경기도 지역별 소방활동 분석을 통한 특성 유형화 및 맞춤형 지원 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참석했으며, 실무적인 조언을 위해 전용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장 등이 참석했다.

박은하 책임연구원(용인대 산학협력단)은 현재까지 진행된 선행 연구 분석결과와 경기도 소방활동 분석 결과를 보고했으며, 이어 도시규모와 인구밀도, 관할 면적 등에 따른 특성 유형화에 대해 설명했다.

연구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의원들은 내실있는 연구결과 도출을 위해 연구진행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점과 추가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

안계일 위원장은 “연구의 목적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소방활동 지원방안 마련인 점을 감안하여 소방서별 소방활동을 출동요인별로 분석하여 특성 유형화를 구체적으로 세분화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연구진들은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해 연구 내용을 보완하고, 소방서 현장 방문 및 소방대원 인터뷰, 사례 조사를 통해 내년 1월 최종보고회까지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도출하겠다고 했다.

김범상/기자

#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세수감소에 대응한 '경기도중앙협력본부' 적극 역할하도록 점검 주문

### 국회 및 중앙부처와 도를 잇는 플랫폼으로써 국비사업 확보에 총력을 다할 수 있도록 '경기도중앙협력본부' 예산편성 및 역할 점검 주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4일 제372회 정례회 2024년 경기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경기도중앙협력본부'의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역할 점검을 주문했다.

김철진 의원은 “‘경기도중앙협력본부’는 국회 및 중앙부처와 도(道)를 잇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로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된다”라고 말한 뒤 “다만 부서가 잘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사무실·생활관 임차료, 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협력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예산은 보이지 않고 아마도 매년 비슷한 비율로 불용되고 있다”며 “사업목적에 맞는 정책을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점검하고 그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김철진 의원은 “경기침체 국면에서 경기도가 세수 감소에 대응해 국비사업 확보에 총력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범상/기자



김동연/기자



# 수원특례시 손바닥정원 곳곳에 온기가 심겼다!

### 도심 어디서나 5분만에 만나는 모두의 정원, 자투리 공간으로 정원문화 확산

‘정원’이 가까워졌다. 집 안팎에서 가드닝을 하며 나만의 정원을 꾸려가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을 정도다. 특별한 꽃과 나무, 연못과 기암괴석으로 꾸며야만 할 것 같던 정원이 생활 속에서 쉽고 가깝게 식물을 가꾸며 누리는 공간으로 변화하는 정원문화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수원에서는 더 특별한 정원들이 곳곳에 생겨났다. 이곳들이 함께 만들고 가꾸며 공동체가 공유하는 ‘손바닥정원’이다. 시민 손으로 만들고 시민 곁으로 다가간 손바닥정원이 수원 전역에서 힐링과 휴식의 거점이 되고 있다.



◇이웃 화합을 되살린 행궁언덕마을 작은 정원  
팔달산 아래에는 오래된 주택 단지가 있다. 산자락과 이어지는 언덕 아래 골목마다 기와집과 양옥집들이 제각각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구도심의 정취를 바탕으로 레스토랑과 카페 등이 들어서 행궁동의 또 다른 매력기 펼쳐지는 마을이다.

특히 행궁로26번길 커다란 불상 아래 첫 번째 집은 열려 있는 넓은 마당이 눈길을 끄는 집이다. 언제나 열려 있는 ‘행궁언덕마을 누구나 정원’이다. 지난해 원래 있던 넓은 마당을 보수하면서 담장 대신 펜스를 치고 절반가량의 공간을 마감하게 이웃과 공유한 손바닥정원이다.

집주인 김명란씨(55)는 외곽 40㎡ 남짓 공간을 정원으로 꾸렸다. 봄에는 봉숭아, 꽃말, 수국, 작약을 심고 여름에는 마당 입구에 나팔꽃과 연꽃을 가꿨다. 또 가을에는 코스모스와 백일홍, 국화를 식재해 골목에서 계절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담벼락과 돌 틈 하나하나 작은 공간까지 놓치지 않고 정원을 만들었다.

손바닥 크기의 작은 정원은 주민들의 화합을 이끄는 촉매가 됐다. 마당 정원을 가꿔 개방하기로 하면서 손바닥정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육받는 공간으로 활용됐고, 지난 5월 한가로운 어느 봄날에는 작은 정원에서 도시락 음악회도 열렸다.

마을에도 변화를 불러왔다. 마당 공간을 공유하는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꽃 화분을 나눠주며 일사를 나눴던 인근 주민들이 서서히 집 대문을 열기 시작한 것이다. 돈독해진 행궁로26번길 이웃들은 집 마당과 정원, 주차장, 대문 앞 공간을 활용한 아트세일도 진행했다. 지난 10~11월 두 달간 주말에 많게는 10가구가 참여할 정도로 활발하게

소통했다. 주민들은 행사를 마친 후 자발적으로 골목을 청소하며 공동체의 중요성과 애郷심을 확인했다고 전한다.

행궁언덕마을을 누구나 정원을 만들고 관리하는 김씨는 “손바닥정원 조성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정원을 만들고 공간을 공유하면서 마을 장터가 열리고 동네가 활발해졌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솔밭마을 보이던 빈 공간, 정원으로 재탄생  
장안구 울전동에도 주민들의 발길이 잦은 손바닥정원이 있다. 성군관 대역 환승주차장 통행로와 맞닿은 20㎡ 규모의 공간이다. 이곳은 역을 중심으로 동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오가며 마을과 세상을 연결하는 관문 같은 역할을 했다. 하지만 원래 나무 몇 그루가 전부여서 빈 공간에서 일부 주민들이 휴식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울전동지킴이봉사단은 이곳을 손바닥정원으로 조성하기로 뜻을 모으고 지난 7월부터 아끼자기한 정원을 꾸렸다.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운 자투리 공간에 사람들이 꽃과 나무를 즐길 수 있도록 비비추, 송엽국, 가우라, 부용, 맥문동, 튜립 등을 심고 가꿨다. 마당 정원을 가꿔 개방하기로 하면서 손바닥정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육받는 공간으로 활용됐고, 지난 5월 한가로운 어느 봄날에는 작은 정원에서 도시락 음악회도 열렸다.

마을에도 변화를 불러왔다. 마당 공간을 공유하는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꽃 화분을 나눠주며 일사를 나눴던 인근 주민들이 서서히 집 대문을 열기 시작한 것이다. 돈독해진 행궁로26번길 이웃들은 집 마당과 정원, 주차장, 대문 앞 공간을 활용한 아트세일도 진행했다. 지난 10~11월 두 달간 주말에 많게는 10가구가 참여할 정도로 활발하게

이 1천1백만원이 모일 때마다 온도탑의 나눔 온도가 1도씩 올라간다.

고양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을 홍보 서포터즈로 위촉하고 시민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경기 불황으로 나눔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위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아진다”라며 “나눔은 마음이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62일간 이어지는 캠페인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청,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성공 및 물품 기부접수, 무통장 입금 자동응답시스템(ARS), 쿠팡(QR)코드 간편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한영기/기자



성한 울전초 텃밭정원이다. 일부는 한국 고유의 전통인 진달래, 히어리, 노루오줌, 부처꽃, 구절초 등을 심어 우리 식물의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일부는 텃밭상자를 설치해 방과 후 교육과 체험활동을 할 수 있게 운영했다. 특히 정원에 높낮이가 있는 화단과 디딤돌 등을 두어 학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공유 정원의 가치를 알렸다.

영동3동 주민들은 동 경계 외곽 도로변에 희망동산을 만들었다. 매년 3동과 맞닿은 경계지역 건물 사이에 버려져 있던 황무지였다. 영동3동 주민자치회 마을만들기 분과위원회는 1980년대 개나리마을이라고 불렀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개나리의 꽃말 ‘희망’이 중심이 되는 희망동산을 만들었다. 72㎡ 규모의 공간에 개나리와 미니 배롱나무, 목련, 황금측백, 미스키파일락, 남천나무 등을 아끼자기하게 심었다.

영동지구 외곽에 위치한 단절된 느낌이던 삭막한 공간에 꽃동산을 조성한 것이다. 폐자원을 활용해 만든 바람개비가 심 없이 돌아가는 희망동산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작은 여유를 선물하는 공간이 됐다.

◇5분마다 만나는 녹색 공간, 수원시 손바닥정원  
행궁동과 울전동 등 앞서 소개한 정원들 모두 손바닥정원 우수사례다. 말 그대로 손바닥만 한 작은 공간을 정원으로 꾸며 도심 속 휴식공간을 활용하고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취임 초기부터 역점을 두어 추진한 수원시만의 독자적인 사업이다.

도시의 빈 공간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마을공터, 자투리땅, 공동주택 단지 사이 관리가 모호한 공간 등 도심 곳곳에 작은 공간이 숨어 있다. 이런 공간을 능동적으로 찾아내고 시민들이 직접 꽃과 나무를 심

고 가꾸며 5분마다 작은 정원을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손바닥정원의 핵심이다. 수원시는 오는 2026년까지 1천개 손바닥 정원을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지난해 말부터 손바닥정원 추진을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 손바닥정원 개념을 정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손바닥정원 안내 매뉴얼을 만들어 다양한 손바닥정원이 가능하도록 제시했다. 손바닥정원은 점형이나 선형을 포함해 공중과 그릇 등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옥상과 실내는 물론 보행공간과 상가자투리 등을 모두 포함하며. 치유와 심부름 놀이와 배움까지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손바닥정원을 추진하는 세부전략도 수립했다. 집집마다 꽃과 나무를 가꾸고, 5분마다 만날 수 있는 1천개의 정원을 만들기 위해 3개 전략 12대 과제를 구체화했다.

첫 번째는 자발적인 정원문화 지원이다. 지난해 12월27일 손바닥정원 토크콘서트를 개최해 손바닥정원 사업을 알린 후 가드닝의 날, 정원특강 등을 열어 시민들이 정원 만들기 등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원녹지사업소 내에 ‘도구지원센터’를 만들어 호미와 전지기 등 220개의 도구를 비치해두고 누구나 빌려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 목표인 일상 속 정원 더하기에는 시민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1년 동안 300개의 손바닥정원이 조성됐고, 시민들이 만든 정원을 대상으로 공모와 경연을 진행해 우수사례를 뽑는 과정도 진행했다. 손바닥정원 사업 첫해인 올해 12개의 정원이 콘테스트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돼 5월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는다.

세 번째 추진 전략인 지속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새빛수원 손바닥정원단’이 힘을 보탤다. 발족 이후 850명에 달하는 단원이 모집돼 정원계획부터 조성과 관리 활동은 물론 의견 개진까지 손바닥정원 확대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다양한 기관과 기업, 단체 등의 협력도 있따라 참여의 폭을 넓히고 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손바닥정원은 단순히 작은 정원이 아닌 나와 이웃이 함께 가꾸는 정원”이라며 “손바닥정원이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의 대표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시민께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삼/기자

# 성남시, 전 시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 2개월 만에 접종률 40% 넘어

### 14~64세 시민, 1개월여 만에 29.44% 접종마쳐 예년보다 3배 가까이 높아

성남시는 9월부터 경기도 최초로 실시 중인 전 시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이 2개월여 만에 시민의 41.61%가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다.

전 시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은 민선 8기 신성장 시장 공약사업으로 9월 20일부터 시작했다. 먼저 접종을 시작한 13세 이하 어린이·임신부·65세 이상 어르신은 2개월 만에 대상자 24만8470명 중, 74.4%(18만4861명)가 접종을 마쳤고, 10월 20일부터 시작한 14~64세 시민은 1개월여 만에 대상자 66만9607명 중 29.44%(19만7148명)가 접종을 마쳤다.

접종 대상 시민 91만8077명 중 38만2009명(11월 30일 기준)이 접종을 마쳐 접종률 41.61%를 기록했다. 전 시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은 내년 4월 30일까지 실시된다.

지난 2018~2022년까지 5년간 14~64세 성남시민의 독감백신 평균 접종률은 10% 미만이었다. 전 시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을 시작한 올해는 11월 기준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내년 4월 30일 종료까지는 접종률 5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독감에 대한 면역력을 높여 시민들의 건강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 시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을 시작했다”면서 “집단 면역 획득으로 독감 유행 발생을 예방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독감은 지난 절기부터 1년 넘게 ‘유행주의보’ 발령이 유지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46주차(11.12~18) 독감 의사환자분율(외래환자 1000명당 의심환자 수)

은 37.4명이다. 질병관리청 독감 유행기준(2023~2024절기 6.5명)과 비교해 5.8배 많고, 지난해 같은 기간(13.2명)보다도 3배 남짓 높다.

그동안 성남시는 13세 이하 어린이·임신부·65세 이상은 국가지원 사업으로, 40세 이상 만성질환자·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60~64세는 시 자체 사업으로 31만여 명에게 독감백신을 무료 접종했다.

올해부터는 14~59세까지 포함한 전 시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으로 확대했다. 이를 위해 시는 6월, 2회 추경안에 92억 원을 신규 편성해 확보했다. 7월에는 성남시의 사회와 독감 무료 접종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8월에는 시민들이 동네 가까운 병·의원에서 독감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위탁의료기관을 지난해보다 33개 늘어난 498개소로 확대 지정했다.

시는 독감백신 무료 접종에 추경으로 확보한 92억 원을 포함해 174억 원의 사업비를 마련해 투입했다.

신 시장은 “독감 불활성화 백신은 바이러스 성분만 포함해 병원성이 없으므로 백신 부작용에 대한 오해 해소 등 지속적 홍보로 내년 4월 종료 시까지 접종률을 높여겠다”면서 “시민 여러분은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겨울철 코로나19와 독감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4가 독감백신 무료 접종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독감백신 무료 접종을 하려면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을 갖고 가까운 지정 병·의원을 방문하면 된다. 지정 병원 현황은 성남시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병삼/기자



# 화성시, '전국 최초' 대중교통을 활용한 화성형 디지털도시시스템 구축

### '전국 최초' 대중교통을 활용한 화성형 디지털도시시스템 구축

화성시가 전국 최초로 대중교통을 활용해 도로위 돌발상황을 첨단 관리하는 실시간 GPS 및 AI 기반 ‘화성형 디지털도시시스템’을 구축했다.

화성형 디지털도시시스템은 GPS 및 AI를 기반으로 도로에서 발생하는 돌발상황(포트홀, 도로균열, 낙하물, 노면포시 불량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도로운영 관리부서에서 활용함으로써 안전한 도로 환경 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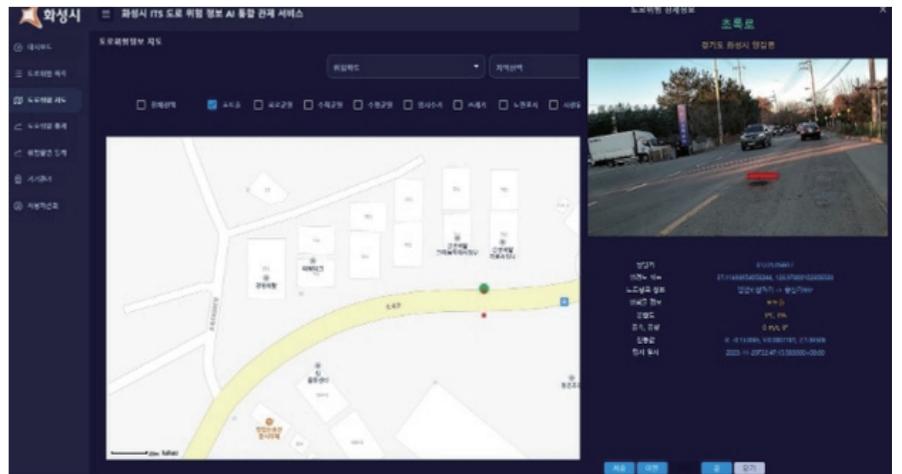
앞서 시는 지난 4월까지 화성시 관내 허버스 및 법인택시에 AI도분석 단말기 70대를 설치하고 11월 수집 정보의 테스트를 완료했다.

시는 2024년부터는 도로관리 관련 부서에서 운영프로그램을 배포하고 화성형 디지털도시시스템을 본격 운영해, 도로위 돌발상황을 첨단 시스템 기반으로 관리해 위험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AI도로분석단말기를 쓰레기수거 및 도로 청소차량 등에도 확대 설치해 첨단도로관리 수집·관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시민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한 시장의 책무”라며 “화성형 디지털도시시스템을 통해 도로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 고양특례시 '희망2024 나눔캠페인' 시작...11억 모금 목표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경기 불황으로 나눔 관심 줄어...도움 손길 필요해”

고양특례시가 경기사랑의열매와 함께 이달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성공 11억 모금을 목표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을 실시한다. 시는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캠페인 출범식을 12월 4일 고양시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열었다.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으로 진행된 출범식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한 김영식 고양시의회의장, 권인욱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이창원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장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서포터즈 위촉식 순서로 진행했다.

출범식은 권인욱 공동모금회장의 인사말,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고양시 일산사구협동조합 기부금 전달식,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서포터즈 위촉식 순서로 진행했다.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은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기부로 고양을 가치있게!’라는 슬로건을 걸고 진행된다. 성공은 고양시 내 사회복지시설과 소외계층에 전액 지원될 예정이다.

경기사랑의 열매와 고양시는 캠페인 홍보를 위해 일산문화광장에 ‘사랑의 온도탑’을 설치할 예정이다. 모금 목표액

이 1천1백만원이 모일 때마다 온도탑의 나눔 온도가 1도씩 올라간다.

고양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을 홍보 서포터즈로 위촉하고 시민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경기 불황으로 나눔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위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아진다”라며 “나눔은 마음이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62일간 이어지는 캠페인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청,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성공 및 물품 기부접수, 무통장 입금 자동응답시스템(ARS), 쿠팡(QR)코드 간편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한영기/기자



### 의정부시, 12월 미래가치 공유의 날 개최

의정부시는 12월 4일 시청 대강당에서 직원 1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민관협치를 주제로 '미래가치 공유의 날'을 개최했다.

월례 행사로 진행되는 미래가치 공유의 날은 시장과 직원이 시의 발전적 비전과 우수사례에 대해 소개하며, 중점적으로 추구해 나갈 미래가치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다.

이날 행사에서는 시민이 행정에 적극 참여하고, 공감·합의·동의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 추진의 중요성에 대해 공유했다.

김동근 시장은 행정의 시민 참여 범위가 단순 의견 제시가 아닌 능동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가는 수준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급자 중심의 해결 방식을 탈피해 민관이 협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민관협치의 실제 사례로 20여 년간 건설폐기물로 뒤덮여 있었던 신곡체육공원 부지를 300여 명의 통장협의회 회원들이 직접 '해바라기 정원'으로 조성한 것과, 복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통해 '모두의 돌봄'이라는 신규 정책을 발굴한 것을 설명했다.

직인 발표에서는 자원순환과 이용철 주무관이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갈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온 소각장 현대화사업을 시민들의 집단지성으로



해결한 사례인 '시민공론장'에 대해 이야기했다.

시민공론장은 소각시설 반대 지역주민, 운영위원회, 전문가 등 100여 명으로 구성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된 모범사례다. 10월 경기도가 주최한 '2023년 공공갈등관리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최우수 혁신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김동근 시장은 "다양한 요구와 내재된 갈등으로 복잡한 사회 속에서 지속 가능한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민관협치가 필수 수단"이라며, "정책 추진에 앞서 시민을 이해하고 소통하며, 시민들로부터 공감과 합의를 얻을 수 있도록 직원 모두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만식/기자

### 김경희 이천시장, 모가면 시몬스테라스 크리스마스마켓 방문

김경희 이천시장은 2일 이천시 모가면에 위치한 시몬스테라스 크리스마스마켓에 방문해 관내 기업행사에 동참하고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김 시장이 방문한 모가면 신갈리에 위치한 시몬스테라스는 2018년에 준공된 부지면적 47,464㎡(14,383평) 규모의 초대복합문화공간으로, 매트리스 생산은 물론 침대박물관 및 판매장과 휴게공간 등을 갖추어 침대와 관련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겨울에는 야외에 조성된 아름다운 초대형트리와 전구장식으로 사랑받고 있는 이천의 대표명소이다.

이번 시몬스테라스의 크리스마스마켓은 기업의 ESG경영의 일환으로 처음 개최되는 연말행사로 이천지역의 딸기 농가 및 소상공인과 더불어 각종 상품 판매장, 캐리커처부스, 타로부스 등이 펼쳐지며 12월 1~3일, 12월 8~10일 총 6일간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일요일은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개최되고 금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4시, 오후 6시에 팼페라 공연도 개

최되어 크리스마스 시즌의 방문객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김 시장은 "이천시에 자리한 제조기업이 지역 일자리 창출은 물론 창의적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지역주민과의 상생은 물론 관광명소로 까지 자리매김 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기업이 지역과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한 지원방안 모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 용인특례시 '조아용' 삼성전자 '달수' 환경 보호 위해 뭉쳤다

### 시 공식 유튜브 채널 '조아용 TV 환경 교육 체험 콘텐츠에 함께 등장

용인특례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과 삼성전자 ESG 마스코트 '달수'가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뭉쳤다. 용인특례시는 5일 용인시 공식 유튜브 채널 '용인시 조아용TV'에 조아용과 달수가 함께 출연하는 캐릭터 협업 콘텐츠를 제작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영상은 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과 삼성전자의 ESG 마스코트 달수가 용인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에서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모습을 담았다. 시민들이 캐릭터의 친숙하고 귀여운 모습을 통해 좀 더 쉽게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느끼고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에 대해서도 알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달수는 멸종위기 1급 야생동물이자 천연기념물 330호인 수달을 의인화한 ESG 마스코트다. 삼성전자가 기후·화성 반도체 사업장에서 정화한 물을 방류한 뒤 인근 오산천 생태계가 살아나고 수달이 돌아온 것을 기념해 만들었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환경 보호, 투명한 지배구조를 중요성을 강

조하는 경영 개념이다. 시는 달수와의 협업을 시작으로 에버랜드 레서판다 '레시', EBS 자이언트 '펜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캐릭터들과 협업 영상을 제작해 선보일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특례시민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는 조아용과 삼성전자의 친환경 캐릭터 달수를 이용해 환경 보호를 위해 의미있는 콘텐츠를 제작해 선보이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캐릭터 협업을 통해 시정을 보다 친숙하고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 안양시, 시민이 직접 안양소식 전한다...내년도 SNS 시민기자단 모집

#### 최대호 안양시장 "시민과 소통창구 역할,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안양시가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안양의 다양한 모습을 소개하고 시정을 홍보할 '2024년 안양시 SNS 시민기자단'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SNS 중 유튜브의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하고 경쟁력 있는 시청 홍보를 위해 기존의 글, 사진 중심의 시민기자단을 내년부터 영상 분야까지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모집 인원은 시민기자단 총 25명 중 내달 임기가 만료되는 9명이다.

모집 기간은 이달 5일부터 26일까지이며,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 시민으로서 현장 취재와 기사 작성, 사진 촬영이나 유튜브 영상 제작이 가능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시민기자단 활동을 희망하는 자는 안양시 누리집이나 블로그에 게시된 지원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선발 결과는 내년 1월 중 개별 안내하며, 선발된 시민기자는 위촉일로부터 2년간 활동한다.

시는 시민기자가 제작한 기사, 영상이 안양시 SNS에 게재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며, 우수활동 시민기자에게는 연말 표창을 수여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SNS 시민기자단은 취재를 통해 현장의 소식과 모습을 전하며, 시와 시민과의 중요한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공모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우용/기자

**2024 안양시 SNS 시민기자단 모집**  
2023. 12. 5.(화) ~ 12. 26.(화)

- #모집인원: 9명
- #모집대상: 안양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인 자, SNS 활동을 활발히 하며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자,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한 동영상 촬영 및 편집이 가능한 자
- #지원방법: kyuseong@korea.kr로 이메일 제출 (지원서류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안양시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및 전화 문의) 안양시 홍보기획관 ☎031-8045-2357
- #활동기간: 2024. 2. 1. ~ 2026. 1. 31. (2년)
- #활동내용: 시 공식 블로그·인스타그램 기사작성, 유튜브 영상 제작
- #활동혜택: 원고료 지급, 연말 우수활동기자 표창
- #결과발표: 2024. 1. 12.(금) 예정

### "변화하는 보육환경에 대응" 안산시, 어린이집 원장 대상 맞춤형 보육 컨설팅



안산시는 지난 4일 어린이집의 안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제3차 내비게이션 맞춤형 보육컨설팅 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변경 인가를 받았거나 컨설팅을 희망하는 원장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적용되는 지침 및 법령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실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어린이집 주요 지도점검 사항 ▲아동학대·시정명령·부정수급·행정처분의 사례 ▲공공재정 환수제도 등 사전예방적 차원의 보육컨설팅

위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어린이집 원장들은 "어린이집 운영의 고충을 나누고 중점 지도점검 사항과 실제 사례를 통해 변화하는 보육환경에 대응한 어린이집 운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줘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박은주 보육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어린이집 지도점검의 부담을 줄이고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컨설팅과 모니터링을 통해 다양한 보육 서비스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상주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For more success with **SANGJU**

더 큰 성공을 위한 선택



# 전남도, 에너지기업 중동시장 진출 확대 나서

### 리야드서 에너지워크...사우디 트와이크 등 기업인 100여명 참석

전남지역 에너지기업이 중동시장에서 두바이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확장해가는 거침없는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전남도는 4일(현지 시간)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전남 에너지기업과 사우디 트와이크 그룹, PEDCO사를 비롯한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KOR-KSA 에너지워크' 행사를 가졌다.

에너지워크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박준용 주사우디대한민국대사, 김두식 리야드 코트라 무역관장, 양국 기업인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두바이,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해외시장을 꾸준히 두드러온 전남재생에너지연합(태양광·열·통신·마이크로그리드·행정) 기업이 참여해 사우디 기업이 설계 중인 미래 스마트 도시 사업 참여 협약을 했다. 전남재생에너지연합에는 (주)솔라드림, (주)에스엠팜건설, (주)티디엘, (주)금철이노베이션, (주)그린이엔에스 등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성과는 사우디 카심주에 계획 중인 데이터기



반 스마트 도시 일명 DCC(Digital Collaboronics Complx) 프로젝트에 전남 에너지기업의 참여 협약이다. DCC는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한 66만여㎡(20만평) 규모로 청정 에너지 수급과 연구소, 기업, 쇼핑, 레저 등이 복합된 5조5천억 원 규모의 스마트 도시다.

DCC프로젝트를 주관하는 디노믹스 컨소시엄과 트와이크 그룹은 기존 태양열 시스템보다 열효율이 높고 기술력이 뛰어난 나주의 (주)금철을 포

함한 전남 기업과 이 사업을 공동 추진기로 했다.

또한 PEDCO사와 강진의 (주)로우카본은 2030엑스포와 네움시티 프로젝트의 기후테크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전망하에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포집 및 자원화(DACCS) 사업은 물론 블루수소를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사업 등 기후테크 분야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협약(MOU)을 했다.

이와는 별개로 지난 2일 사우디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네움시티 건설 참여 기업인 알 코라예프 그룹은 (주)금철과 2024년까지 제품 공급 및 공장 건립 등에 300억 원을 투자하고, 향후 전남 에너지기업 연합에 태양광, 태양열, 스마트팜, 에너지저장장치(ESS), 통신 등 분야에 1조 3천억 원 규모의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협약을 했다.

김영록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사우디는 중동지역 중심국가로 에너지 전환을 포함한 2030 비전을 실현하고, 네움시티를 비롯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역동적인 나라"라고 평가하며 "이 과정에서 전남 에너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양국의 지속 가능한 교류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우디 호남향우와의 오찬에서 향우들은 "그동안 우리나라 지방정부에서 사우디와 문화, 관광, 행정 분야의 교류는 있었지만, 자치단체장으로서 수출 분야의 적극적인 행보는 처음"이라며 "전남산 농수산물 등 판촉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박중배/기자

# 강진군,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 한랭질환자 감시기관 모니터링 및 주민홍보 강화



강진군은 겨울철 한파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은 감시기관으로 지정된 전라남도 강진의료원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응급실에 방문한 한랭질환자를 등록하며, 이를 토대로 보건소는 모니터링과 함께 신속한 보고 체계를 유지하게 된다.

지난해 한랭질환으로 전국에서 447명의 환자가 신고됐으며, 전남은 28명이 발생했고 강진은 환자가 발생되지 않았다.

전체 발생 환자 가운데 연령대별로는 80세 이상 환자가 102명(22.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60대 81명(18.1%), 50대 75명(16.8%) 순이었으며, 65세 이상이 42.3%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303명으로, 여성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저체온증, 동상 등이 있으며 방치 시에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초겨울에는 추위에 신체 적응력이 떨어져 약한 추위에도 한랭질환의 위험이 큼으로 주의해야 하며 특히, 면역력이 취약한 노인과 소아, 추위에 대한 인지가 어려운 음주자, 겨울철 야외작업이 잦은 근로자 등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 섭취, 균형 잡힌 식단으로 충분한 열량 섭취, 실내 적정온도(18~20℃) 유지, 외출 전 외부온도 확인 및 추운 날씨에는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서현미 보건소장은 "울거늘 급습한 파가 짖을 것으로 예보되는 가운데 한랭질환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잘 지켜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윤호/기자

# 함평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193억 8천만 원 지급

전남 함평군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93억 8천만 원을 8,484농가에 지난 3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중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0.5ha 이하 농지를 소유한 농가에게 지급되는 '소농직불금'과 농지면적에 따라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소득, 영농기간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20만 원을 정책 지급하며, 면적직불금은 농가별 재배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를 차등 적용해 지급한다.

다만, 농가가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형상·기능유지, 농약 안

전 사용 등 17개 준수사항을 따라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건에 따라 10~20%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올해부터는 지급 대상 농지요건이 일부 완화돼 2천958농가에 소농직불금 35억원, 5천526농가에 면적직불금 158억원을 지급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6억여 원이 증가한 수치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이번 직불금 지급을 통해 올 여름 유난히 길었던 장마와 폭염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미지급 농가들도 빠른 시일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 노관구 순천시장, 공무원 대상으로 미래를 여는 아침 특강 개최

### AI주권시대,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춘 새로운 미래 비전 공유

순천시가 5일 순천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특강을 개최했다.

「우리는 디즈니를 넘어 AI와 함께 미래로 갑니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특강은 공무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관구 순천시장이 직접 강연자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노 시장은 지난달 15일 추진했던 6박 8일의 미국 연수 결과를 공유하며, 국외 애니메이션 산업의 현주소와 AI의 옷을 입고 달라질 순천의 새로운 미래 비전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특히, 강연 후반부에는 실제로 인공지능(AI)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시연하는 시간을 함께 가져 참석한 공무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노 시장은 "2013정원박람회 순천만을 항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개최했고, 2023정원박람회는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제는 AI주권시대, 순천의 우수한 아날로

그 자원 위에 디지털 기술을 더해 순천의 새로운 미래를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2023정원박람회가 전문가를 비롯한 전 국민에게 찬사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만의 상상력으로 정원을 새롭게 창조했기 때문"이라며, "꼭사 같은 창의적인 상상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과 본인 권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책임 있는 행정의 역할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이어 "2023정원박람회 이후, 새롭게 준비하는 미래 역시 시 전체가 융복합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며,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공직사회 전반이 도시공간을 보는 눈을 높여 도시의 판을 바꾸는 힘인 상상력을 길러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시는 이날 공유된 새로운 시정 비전을 바탕으로 부서별 융복합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완성해갈 예정이다.

이승준/기자



# 남원시,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 포럼" 개최

남원시는 생활인구 유지 10만 명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을 위해 생활인구 정책 포럼을 12월 4일 남원예천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자체별로 추진 중인 생활인구 활성화 사업 사례를 공유하고 생활인구 전문가의 다양한 정책 제언을 수렴하기 위하여 기획됐다.

포럼의 패널로는 남원시 지리산이음 조양호 이사장, 고령군 신상진 인구정책과장, 인제군 냇강마을 박수홍 대표, 패스파인더비움(주) 김만희 대표, 아시아교류협력센터 정운재 이사장, 남원시 안순엽 기획실장이 참여했다.

이남출/기자

이 자리에서는 남원시-인제군-고령군의 생활인구 정책 및 사업 사례,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팬슈머 역할 및 정책 제언 등을 이야기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최근 '전북대 글로벌컬대학30' 선정으로 우리 남원에 전북대 남원 글로벌캠퍼스가 설립되면 외국인 학부생을 비롯해 산업인력, 창업 입주기업 등 2,000여 명의 관계인구 유입으로 남원지역의 정주·생활인구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며 "정책 포럼이 생활인구를 늘려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일하는 노후, 행복한 청춘' 나주시, 2024년도 노인 일자리 3805명 모집

### 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 등 4개 분야 ... 전년 대비 465명 증가



전라남도 나주시가 지역 어르신의 활기찬 노후를 위한 2024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참여자를 모집한다.

나주시는 오는 15일까지 읍·면·동 20곳과 사업 수행기관 6곳에서 4개 분야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내년도 일자리는 전년 대비 465명이 증가한 총 3,805명을 모집한다. 사업비 162억원(국비50%·도비15%·시비35%)이 투입된다.

노인 일자리(참여자 수)는 '공익활동형'(2,900명), '사회서비스형'(605명), '시장형'(200명), '취업알선형'(100명) 등 총 4개 분야다.

사업은 읍·면·동, 동부노인복지관, 중부노인복지관 주관의 직접수행 사업과 나주시니어클럽, 나주시노인복지관, (사)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 (사)도원인복지회 등 4곳 수행기관 사업으로 나

뉘어 추진된다.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공익활동형 일자리 보수는 월 30시간 근로 기준 월 29만원이다. 전년 대비 2만원이 증가했다.

사회서비스형은 참여 노인의 역량에 맞춘 지역사회 돌봄에 중점을 둔 일자리로 월 60시간 근로 기준 전년 대비 4만원이 증가한 63만4000원을 지급한다.

시장형 일자리는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 등을 공동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월평균 보수는 267만원으로 책정됐다.

취업알선형은 노인 일자리 참여 대상자를 수요처와 연계하는 직종으로 근로계약서에 준해 보수를 지급한다.

신청자 기본 요건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이며 일부 사회서비스형, 시장

형 사업의 경우 60세 이상 주민도 참여할 수 있다. 신청 요건 문의는 사업수행기관 4곳으로 하면 된다.

희망자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읍·면·동, 일자리사업수행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복지포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보건복지부 선발기준표에 의거해 참여자를 오는 22일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된 참여자는 내년 1월부터 상해보험가입과 안전·직무교육 등을 수료하고 본격적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다양한 일자리를 통해 경제활동을 하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만/기자



### 보성군, '별교상고협동조합', 'KMB 대한민국 제과 기능장'과 손잡다

보성군은 북재활에서 별교상고협동조합과 KMB 대한민국 제과 기능장 김경오 요리사가 보성 특산물을 활용해 개발한 빵 시식회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각종 빵은 지난 6월 21일 별교상고협동조합이 전남형 예비마늘기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총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5개월간의 시행착오 끝에 만들어졌다.

매, 실시간 온라인 방송 판매(라이브 커머스) 등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별교상고협동조합에 장학금으로 기탁할 계획이다.

별교상고협동조합 공형욱 대표는 "현재 12명인 조합원과 학생 50명, 지역민 100명, 교직원 20명, 별교상고 동문 2만여 명과 함께 보성 특산물을 활용해 개발한 빵을 널리 알려 고향 사랑을 실천하겠다."라며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지역민과 함께 지역이 활기를 띠고 함께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보성군에 청년들이 고향에 남아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사업 연계와 프로그램 지원 등을 찾아 마을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경오 요리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삼성 이건희 전 회장의 베이커리 전담 요리사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경기도 파주와 전남 여수에서 제과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최원영/기자

#### 보성녹차와 별교떡을 활용한 '꼬막녹차케이크' 선보여...

이날 시식회에서는 보성녹차와 별교떡 꼬막초콜릿생과, 꼬막 크림생과, 보성녹차도넛, 꼬막녹차케이크, 녹차가스텔라 등을 선보였으며 눈길을 사로잡는 이색적인 모양과 보성녹차 고유의 맛과 향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개발된 빵들은 소비자의 입맛과 취향에 맞게 대화해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되고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지역 먹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별교상고협동조합은 이번 사업을 통해 개발된 빵을 교육청과 협업체 학교 급식으로 납품하고 보성읍·별교읍 제과점 납품, 별교상고등학교 동문 판



## 전북도, 2024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막판 유치 총력전

인천·제주와 3파전, 치열한 접전 속 내일(7일) 정오쯤 개최지 결정



전북도와 전주시가 재외동포청 주관 2024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구 세계한상대회) 유치를 위해 막판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도는 5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과 재외동포 경제인과의 교류협력 관계 구축 등 실질적 경제 성과 확대의 기회로 여겨지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2024년 국내 대회 개최 공모에 접수한 뒤 오는 7일 최종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2024년 대회 공모에 전북도를 비롯해 인천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각각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대회 유치를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도에 대한 현지실사는 지난 11월 14일 마무리된 상태이며 오는 7일 각 후보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운영위원들의 투표를 거쳐 개최지가 최종 결정된다.

전북도는 경쟁 지역에 비해 가장 먼저 유치전을 펼쳐왔다.

지난해부터 구축해 온 해외 한인상공회의소 등과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세계 각국의 한인 경제인들과의 접촉 늘려가며 전북 개최의 당위성 등을 설명해 왔다.

약점으로 꼽힌 기반시설은 컨벤션이라는 공간을 뛰어넘어 지역을 아우르는 행사 구성을 통해 극복하고, 전북이 지닌 전통과 문화에 이차전지

등의 신산업을 연계,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한인비즈니스대회 개최를 강조하며 대회 유치에 강한 의지를 표출해 왔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해 제20차 울산 대회에 이어 올해 제21차 미국 대회에도 참가해 대회 유치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특히 미국대회 기간에는 하루에 10건 이상의 일정을 소화하며 미국, 중국, 일본 등 각국의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운영위원들과의 접촉을 늘려갔으며, 이후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전북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온 상황이다.

도는 제안서와 현장실사에서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은 만큼 분위기를 이어가 투표에 앞서 진행되는 제안설명회를 통해 마지막까지 유치를 위한 전북도의 진정성을 표출하겠다는 각오다.

전북도 관계자는 "각 지자체의 유치전이 치열해지면서 설부르게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지금까지 재외동포청, 운영위원(한인비즈니스CEO) 등을 대상으로 전북 유치의 당위성을 설득해 온 만큼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 신우철 완도군수, 시정 연설 통해 내년도 7대 핵심 과제 제시

해양치유산업, 해양바이오산업 등 본격 추진 '제2의 장보고 시대' 도약할 것

신우철 완도군수가 12월 4일 제316회 완도군의회 정례회에서 2024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 연설을 통해 내년도 균형 운영 방향을 밝혔다.

신 군수는 먼저 "올해는 국내 최초로 건립된 해양치유센터 개관으로 해양치유산업이 본격적으로 오르고 해양바이오산업 본격 시동, 국립난대수목원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국립해양수산물박람회 유치,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2단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전남남도 체육대회 성공 개최 등 5만여 군민의 역량과 완도의 잠재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한 해였다"면서 군민께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날로 격동하는 시대 흐름에 혁신적으로 대응하고 내년도에는 7대 핵심 과제를 역동적으로 추진해 지역발전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첫 번째 과제는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완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해양치유산업 본격 추진이다.

완도가 지닌 비교 우위의 해양 자원을 활용해 차별화된 해양치유 콘텐츠를 제공하여 독자적인 해양치유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고, 해양치유에 소비되는 자원은 모두 완도산으로 제공해 농수축산업이 동



반 성장하는 동력으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불러와 완도의 미래를 밝히겠다는 복안이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유일의 '치유의 섬'을 조성해 1,000만 관광 시대의 포문을 열겠다고 피력했다.

국비 총 3천억 원이 투입되는 국립난대수목원과 국립해양수산물박람회 등 대규모 국책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완도로서 가능한 '해양 웰니스 관광 특화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 번째는 해조류와 전복을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어촌의 새로운 소득 모델로 만들고자 연구 및 대량 생산 등 기반 시설을 탄탄히 구축하고 신소재 개발 등으로 경쟁력을 제고하여 서남해안권 해양바이오산업 중심지로 비상하겠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는 농수축산업 활성화와 기후변화 대응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인공지능 기술 접목 미래형 수산양식 시스템 구축, 기후변화 대응 우량 품종과 신품종 개발·보급, 해외시장 진출 가

속화, 아열대 과수 재배 면적 확대, 스마트팜 6차 산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섯 번째,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2단계 구간 건설과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노화~소안 연도교 2단계 사업 등 대규모 SOC 사업에 추진력을 높이고, 도시재생, 어촌 기반 시설 확충 등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쓰기로 했다.

여섯 번째, 어르신부터 청년, 여성, 어린이, 장애인, 다문화가정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더 두텁고 더 촘촘한 복지 시책 확대'에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고, 일곱 번째, 민생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제시했다.

끝으로 신 군수는 "더 크고, 더 멀리 내다보며 미래 성장 기반인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 웰니스 해양관광도시 건설, 농수축산업의 동반성장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여 제2의 장보고 시대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이 이번에 군의회 제출한 새해 예산안은 올해 본 예산보다 6.65% 감소한 5,980억 원이다.

양영율/기자

### 목포시, 안전한 수산물 유통과 소비 촉진 위해 매진

수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및 안전성 조사 강화

목포시가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위축된 수산물 소비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 8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발빠르게 대응하며 안전한 수산물 유통을 통해 목포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및 안전성 조사 강화

목포시는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 제공을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단속 및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강화했다.

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5월과 6월 두달 동안 일본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약 130개소의 업체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1차 특별점검을 전남도청과 합동으로 점검하는 한편, 자체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오염수 방류 이후인 지난 8월 말부터 약 100일간 200여 개소에 대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2차 특별점검을 진행했을 뿐 아니라, 추석 명절 및 김장철을 대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목포지원·서해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종합어시장, 자유시장 등에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 2차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12월 현재까지 시는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물질 등을 검사하는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오염수 방류 이후에는 위판전 수산물의 방사능 여부를 점검하는 등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시민 불안 해

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수산물 소비 활성화 공동 대응 및 소비촉진 홍보 활동 전개

목포시는 수산물 소비 심리 위축을 해소해 수산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유관기관과 연계하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목포수협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수산물 위판과 소비동향을 유심히 살피고 있다.

또한, 지난 8월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수산물 가격안정과 소비 활성화 등 공동 대응을 위해 원전 오염수 방류 전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인근 지자체인 신안군·진도군은 물론 목포·진도·신안수협 등과 연계해 수산물 소비 촉진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아울러 휴가철·추석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수산물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는 등 수산물 소비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 9월 초 조순환 해양수산부 장관의 신청호시장 방문시 수산인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해결책 마련을 건의하는 등 수산인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2024년 갑진년 한해에도 수산물을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뿐 아니라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역동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종배/기자



진도군이 2024년 농촌진흥공모사업에 선정돼 5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얻었다.

군은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 ▲고체유용미생물 구축사업 30억원 ▲꿀벌자원육성품종사업 24억원 등 총 5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농촌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고체유용미생물 구축사업은 토양환경 개선과 친환경 농업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고체형 미생물을 대량 생산하는 특허기술을 적용해 자동장비 체계 제작·설치부터 준공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으로 400톤 규모의 생산 시설을 구축해 노지작물 재배시 농가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고체미생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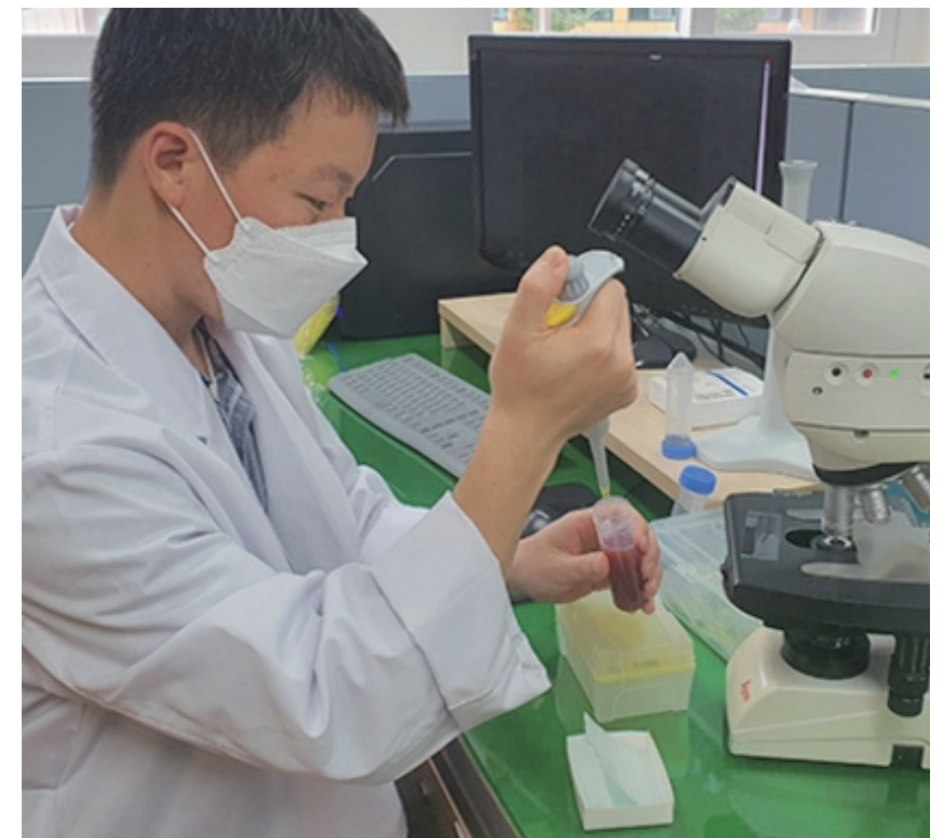
또한 꿀벌자원육성품종 구축사업은 꿀벌 집단폐사와 질병 발생 빈도가 늘면서 흔들리는 농업생태계를 바로 잡고 국내 육성 신품종 우수 꿀벌(원여왕벌)

를 집중 증식에 보급하는 사업이다.

군은 농촌진흥청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화분매개곤충으로서도 유용하고 수밀력, 산란력, 질병저항성, 봉산물 다수확 능력이 우수한 꿀벌 품종을 개발해 전국 양봉농가에 우량 여왕벌을 안정적으로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공모사업이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근 급변하는 농업환경과 소비동향에 맞춰 진도군민의 차별화된 농업 경쟁력과 지도 기술력 선점으로 지역 영농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 경북도민행복대학, 올해 첫 박사 60명 배출

### 학사 796명, 석사 139명, 박사 60명 등 총 995명 명예도민학위 취득

경북도는 12월 5일 도청 동락관에서 경북도민행복대학(총장 이철우) 19개 시군캠퍼스 및 4개 대학캠퍼스, 2개 대학원캠퍼스 졸업생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사 796명, 석사 139명, 박사 60명 등 총 995명에 대한 '경북도민행복대학 명예학위 수여식'을 개최했다.



볼거리를 선사했다.

이날 학위 수여식에서는 내년도 석·박사과정 위탁운영에 선정된 총 9개 대학(대구대, 금오공대, 선린대, 경북보건대, 대경대, 경북전문대, 가톨릭상지대, 경북도립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캠퍼스별 우수학습자 및 학습 수기 공모 입상작, 우수 코디네이터 등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으며, 총학생회와 총동창회 임원 14명에게 공로패와 감사패를 각각 수여하며 노고를 위로했다.

학위수여식에 앞서 평생학습 동아리인 수어울동(울진군), 댄스포츠(김천시), 고고장구(안동시) 공연이 분위기를 띄웠고, 총 26개의 웅장한 캠퍼스 기(旗)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한 해 동안 열심히 배우고 웃고 참여한 도민행복대학 영상 감상과 캠퍼스별 학습동아리 성과물 전시로 많은

받은 노동식(65세, 예천군) 씨는 학우들과 예천8경과 박물관을 견학해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아 그 결과물을 예천군 관광부서에 제공하기 위해 '예지연'(예천 지역 연구회) 동아리 활동을 제안하며 실천한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학습수기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노동식(65세, 예천군) 씨는 학우들과 예천8경과 박물관을 견학해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아 그 결과물을 예천군 관광부서에 제공하기 위해 '예지연'(예천 지역 연구회) 동아리 활동을 제안하며 실천한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고 활발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사연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올해는 학사·석사과정을 거쳐 3년간의 도민행복대학 교육과정을 마친 총 60명의 첫 명예도민박사가 지역 리더로서 첫발을 내딛게 됐다.

박사과정은 강의 위주 교육을 탈피해 농어촌콘텐츠 개발,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마을 ESG경영, 기후환경 변화 등 지역 과제나 관련 주제를 선정해 스스로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찾는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프로젝트형 참여 활동으로 진행했다.

또 전문교육과 깊이 있는 토론과 실제 논문을 작성·발표하는 등 개인

역량 향상과 더불어 지역 성장에 보탬이 될 인재를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경북도민행복대학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평생학습대학 플랫폼으로 수준 높은 강의, 체험 학습, 동아리 활동, 자격증 취득 기회 제공 등 다채로운 단계별 교육활동과 더불어 대학병원, 평생교육원 수강할인, 대학도서관, 스쿨버스 지원 등 지역별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수해복구 지원, 환경정화 등 왕성한 사회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귀감이 되어 경기도, 충남, 충북, 전남 등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우수 평생교육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철우 도민행복대학 총장(경북도지사)은 학사모를 쓴 졸업생 일동에게 축하 인사와 함께 "경북이 주도하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 개막에 우리 청년들이 경북에서 교육받고 취업할 수 있도록 도민행복대학 졸업생들이 선배이자 리더로서 잘 이끌어 주길 바란다"라며, "졸업생들의 학습 열정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속된 도전과 참여를 응원한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ISO 22000 국제표준인증 획득

### '대구 수돗물(청라수)' 식품으로써 안전성 확보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국제표준기구(ISO)의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인 ISO 22000 인증을 획득해, 대구 수돗물인 '청라수'가 국제표준기구로부터 안전한 '식품'으로 인정받게 됐다.

ISO 22000 인증은 국제표준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 식품의 취급, 생산 및 공급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제거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공급하는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대구광역시는 매곡·문산·고산·가창·공산 등 5개 정수장의 취수부터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생산·공급과정 전체와 병입 수돗물 청라수 생산시설에 대해 ISO 22000 인증을 획득했다. 수돗물 생산 및 공급 전 과정에 ISO 22000 인증을 받은 것은 대구의 수도

물이 안전하게 먹는 '식품'으로 체계적인 위생관리와 식품 위해요소 중점 안전관리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대구광역시는 올해 3월부터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등을 제정·마련해 문서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산·공급 공정보 식품 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과 엄격한 위생 관리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인증요건을 철저히 이행해 지난 11월 30일 국제인증기관인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했다.

대구광역시는 인증요건 이행을 위해 정수장의 위생전실, 여과망, 출입문 이중화, 방충망 설치·교체, 깔따구 유충 등 이물질 유입 방지를 위한 환기구 정비,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등 시설개선을 시행했으며 차후 지속적인 사후관리도 이어갈 계획이다.

김경식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으로 대구광역시의 수돗물이 안전한 '식품'으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며, "이러한 국제적 인증을 통해 대구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회복하고, 보다 세심하고 철저한 관리로 안전한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하는 정수장의 엄격한 위생개선에 한층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롯데쇼핑 '부산 CFC' 기공식 개최... 부산시, 글로벌 물류 허브 도약에 박차

### 12.5. 14:00 건립현장(강서구 미음동)에서 개최



부산시는 5일 오후 2시 롯데쇼핑 부산 CFC 건축 현장(강서구 미음동 1640-2)에서 '부산 CFC 기공식'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날 기공식은 박형준 부산시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및 김상현 부회장, 팀스테인 영국 오카도 최고경영자(CEO), 김기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 ▲축사 및 기념사 ▲기공 세리머니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기공식이 연내 개최되며, 이른 착공을 알릴 수 있게 된 이유는 지난 3월 롯데쇼핑이 시와 자동차 물류센터 건립에 관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부산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롯데쇼핑이 삼자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했기 때문이다.

2025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부산 강서구 국제산업 물류도시 내 약 1만 2천 평 규모의 부지에 자동차 물류센터를 건

설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총 2천억 원을 투자하고 생산관리·현장작업·배송기사 등 인력 2천여 명을 신규 고용할 예정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롯데의 새로운 온라인 그로서리(식품) 사업의 첫 걸음을 부산에서 내딛게 돼 의미가 깊다"라며, "부산 CFC를 시작으로 롯데는 오카도와 함께 국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온라인 그로서리 플랫폼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쇼핑은 온라인 사업 확대를 위해 지난해 영국 온라인 슈퍼마켓 기업 오카도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여기에 2030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에 부산에 착공한 CFC는 오카도의 시스템을 적용한 전국 1호 CFC가 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식품품 전용 스마트 물류센터로 건립할 예정인 만큼, 지역 내 소상공인의 디지털 판로개척 지원과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의 롯데 입점을 확대하는 등 지역과의 동반성장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롯데쇼핑의 스마트물류센터가 들

어설 국제산업물류도시는 부산 신항만과 인접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으로 전국 최고의 물류 교통망을 자랑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롯데쇼핑에 앞서 우리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쿠팡, LX 인터내셔널, BGF리테일의 스마트물류센터도 연이어 착공을 준비하고 있어, 글로벌 물류기업들의 대규모 스마트 물류센터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부산은 명실상부 글로벌 물류 허브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기공식으로 부산이 글로벌 물류 허브 도시로 도약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부산과 깊은 인연이 있는 기업인 롯데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부산 경제 활성화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시는 앞으로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 청송군, 2023년 예산효율화 사례평가 대상 수상

청송군은 시민단체가 선정한 "2023년 예산효율화 사례평가"에서 전국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대상을 수상했다.

(사)세금바라쓰기 납세자운동 시민단체에서는 세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쓰는데 대한 납세자 감시운동을 통해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예산집행에 대한 우수사례 등을 평가하여 시상해 왔으며, 청송군은 올해 "전국 최초 무료버스 운행, 경제효과 20억"의 성과를 이루어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2023년 1월 1일부터 전국에서 처음

으로 농어촌버스에 대하여 외국인 및 관광객 등을 포함한 탑승객 전원에 대하여 전면 무료운행을 시행한 청송군의 "농어촌버스 무료운행" 정책은 타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어 벤치마킹이 잇따르는 등 현재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앞으로도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들의 편리와 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선진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안동시, 「희망2024 나눔캠페인」 힘차게 출발

###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기부로 안동을 가치있게', 모금액 7억 원 목표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총 62일간 캠페인 진행 권기창 안동시장, "기부로 안동을 보다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도록 안동시민여러분과 기업, 단체 관계자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해

안동시는 지난 5일, 시청에서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기부로 안동을 가치있게'라는 슬로건으로 『희망2024 나눔캠페인』 출범식 및 사랑의 열매 달기 행사를 개최했다.

'희망2024나눔캠페인'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최하고 안동시가 후원하는 연말 이웃 돕기 집중모금 행사로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전개된다.

안동시는 지난 '희망2023 나눔캠페

인' 기간 동안 6억8,300만 원을 모금하여 경북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 소외계층 및 관내 복지시설을 지원해 왔다. 올해도 적극적인 모금 활동을 통해 나눔의 기쁨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힘든 연말을 보내고 있을 이웃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나눔의 온기를 나눠주길 바란다"라며, "기부로 안동을 보다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도록 안동시민 여러분과 기업, 단체 관계자

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성공 모금 출범식과 아울러 안동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송사(KBS, MBC, TBC) 등을 통해 성공 및 물품 모집에 들어간다. 또한 ARS 기부전화(060-700-0060)와 QR코드를 통한 모바일 기부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성공 모금에 참여할 수 있다.

윤근수/기자



# 영양군 기독교연합회, 성탄트리 점등식 개최

영양군에서는 영양군 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12월 1일 오후 6시 군청 앞 솔광장에서 영양군 기독교연합회 회원 및 지역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탄트리 점등식을 가졌다.

이날 1부 행사에는 찬송을 시작으로 강동석 목사의 성경 봉독, 최병환 영양군 기독교연합회장의 설교, 축도 순으로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이웃돕기 성공 전달식 및 성탄트리 점등식으로

희망의 성탄절 메시지를 전했다.

매년 성탄절을 앞두고 개최되는 성탄트리 점등식은 요즘 경제 불황 속에 힘든 군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성탄트리를 감상하며 행복한 연말연시를 보내길 소망하기 위해 설치됐다.

최병환 영양군 기독교연합회장은 "성탄트리의 밝은 빛은 우리 주변의 어둠과 소외된 이웃에게 온정의 빛이 되고, 힘든 이웃들에게는 희망의 빛이 되

어 군민들께서 사랑을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오도창 영양군수는 "오늘 성탄트리 점등을 통해 올 해 계속된 경제 불황과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운 사회 여건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군민들이 이곳에서 잠시나마 시름을 잊고 가족들과 포근하고 행복한 연말을 보내시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예천군, 2023년도 혁신 우수사례 선정 시상

## 패밀리파크 물놀이장 운영 등 6개 우수사례 선정



예천군은 4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2023년도 예천군 부서 및 읍면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 우수사례 6건을 시상했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한 해 동안 추진한 군정 혁신정책 총 33건을 대상으로 1차 서면심사 및 소통24 대국민 온라인투표로 평가하고, 2차 대면 발표심사를 거쳐 부서와 읍면으로 나눠 최우수, 우수, 장려 각 1건씩 6건이 선정됐다.

2023년 예천군 최고의 혁신 우수사례로는 산림복지과에서 추진한 '패밀리파크 물놀이장 운영'과 용궁면 '회룡포의 봄' 사례가 당선됐다.

산림복지과의 패밀리파크 사례는 변화된 경향에 맞춘 공원 조성으로 평균 연령

33세인 신도시 주민들에게 맞춤형 가족 단위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매점이나 푸드트럭 없이 신도시 중심상가 경기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용궁면 회룡포의 봄 사례는 회룡포에 유채꽃 외에 청보리를 새롭게 파종해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수확한 보리쌀을 관내 373개 경로당에 기부해 심사위원으로부터 호평을 얻었다.

그밖에 우수상에는 △행정지원실 '경북도청 신도시 상생 행정협의회 구성' △용문면 '전통혼례 재현 금당실마을 홍보 특색' 장려상에는 △환경관리과 '재난폐기물 재활용으로 처리비를 절감하다' △지보면 '어울림마당 활성화를 위한 주민주도형 사업 추진' 사례가 각각 선정됐다.

예천군 관계자는 "군민 생활과 밀접하고 체감 효과가 큰 혁신 우수사례의 적극적인 발굴과 포상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더욱 살기 좋은 예천군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경북도, 탄소중립과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원자력 역할과 전망 모색

## 2023 대한민국 원자력 안전포럼, 경주서 개최



경북도는 12월 5일 '2023 대한민국 원자력 안전포럼'을 경주힐튼호텔에서 개최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공동 주최하고, 영남일보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에너지 안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줄 원자력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그에 따른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는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주낙영 경주시장, 이인선 국회의원, 산업부 김규성 원전전략기획관, 원자력 분야 산·학·연·민 전문가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노동석 소동지원센터장이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원자력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세션별 원자력 산·학·연·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세션1)원자력에너지, (세션2)사용후핵연료 관리, (세션3)원자력 정책과 국민공감대 형성발표가 이어졌다.

세션 1은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원자력과 신재생의 기여, 의무, 협력'을, 강형석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원자력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세션 2는 성기열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사업전략팀장이 '지속 가능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서대권 한국수력원자력 사용후핵연료부장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시설 운영'을 주제로 다룬다.

세션 3은 정정화 강원대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학과 교수가 '원자력 정책과 사회적 합의',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이 '사용후핵연료 국민 갈등 치유 관련' 주제로 국민

공감대 형성 방안을 제시한다.

세션별 발표 이후 진행된 패널토의에서는 심형진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정부 원자력정책과 국민 수용성, 원자력의 안전한 관리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불안한 국제정세에 따른 에너지 안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에너지원은 원자력"이라면서,

"전 세계적으로 더욱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탄소중립 실현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 원자력의 안전한 관리방안을 적극 모색하면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북도가 대한민국 원자력 생태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해 나가고, 원자력산업 발전을 통해 지방소멸을 극복해 가는 대표적인 원전특화 자족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한울본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성금 모금 동참

## 울진군에 성금 7천만 원 전달, 나눔 문화 확산에 힘써 이세용 본부장, "우리 본부가 전달한 성금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온기를 전하는 따뜻한 등불이 되길 바란다"고 전제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는 지난 4일, 울진군에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성금 7천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번 성금은 한울본부 2천 4백여 명 직원들과 회사가 매칭그랜트 형식으로 조성했으며, 울진 지역주민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성금을 전달했다.

한울본부는 올 한해 명절맞이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 북한이탈주민 주거환경 개선 사업,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 기탁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또한, 울진 관내 복지시설과 처·소별로 자매결연을 맺어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지난달에는 겨울을 맞아 7천만 원에 달하는 김장김치 4천 1백 포기를 지원하기도 했다.

금일 성금을 직접 전달한 이세용 본부장은 "우리 본부가 전달한 성금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온기를 전하는 따뜻한 등불이 되길 바란다"라는 소망을 전했다. 한울본부는 내년에도 나눔 문화 확산에 힘쓰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세심한 사랑의 손길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 영주시, '영주 관광택시' 오는 20일까지 연장 운영

영주시는 '영주 관광택시'를 20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영주 관광택시 운행 기간은 11월 말까지였으나 12월에도 이용을 원하는 신청자들의 수요가 계속돼 운행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관광택시'는 영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택시를 연계해 영주시 대표 관광지 및 문화를 안내하는 맞춤형 지원상품으로 관광객 만족도 향상 및 재방문율을 높이고자 2020년 7월부터 운영해왔다.

이용 대상은 관외 주민등록이 된 관광객으로, 여행 5일 전 영주시 문화관광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4시간, 또는 6시간 코스를 선택해 사전 예약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4시간 코스 8만원, 6시간 코스 12만 원, 추가 1시간당 2만 원으로 시에서 50%를 지원해 여행객은 50%만 부담하면 된다.

시는 관광택시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부터는 8시간 코스를 추가하고 현재 15개 운영 중인 관광택시를 25대로 늘

린다.

올해까지 4년간 운영한 영주 관광택시는 그동안 1098회, 3천여 명의 관광객들이 이용하며 큰 호응을 얻어 왔다. 시는 코로나19로 소규모 관광이 확산하고 KTX-이음과 관광택시를 연계한 소규모 여행 상품이 출시되면서 이용객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용객들은 맞춤형 편의 제공으로 관광객들이 원하는 관광명소, 영주 맛집 등을 방문할 수 있다는 점이 영주 관광택시의 최대 장점으로 꼽는다. 또 택시 기사들의 친절한 응대로 관광택시 이용객에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실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정교완 관광개발단장은 "관광택시 기사 대상 역량 강화교육 등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고객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맞춤형 관광 편의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금자/기자

# 영덕군, 12월 어업인 경영안전자금 긴급 지원

## 영어자금 이자,오징어 출어경비,어업인 직불금, 유류비 지원

영덕군은 고물가와 소비 위축, 유류비 인상 등의 대외적인 요인으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1,203명을 대상으로 영어자금 이자, 오징어 조업 출어경비, 어업인 직불금, 어업인 직불금 및 어업용 유류비 등 4개 사업에 총 15억 7,400만 원을 지원한다.

영어자금 이자 지원사업은 어업을 경영하기 위해 자금을 대출받은 관내 어업인 380명에게 이자 30%에 해당하는 총 2억 400만 원을 지원하며, 오징어 조업 출어경비 지원사업은 총허용어획량을 준수하는 어선 19척에 총 4,900만 원이 지원된다.

또한, 어업인 직불금 사업은 5톤 미만 소규모 어가 239명과 연근해 어선원 83명에 각 연간 120만 원인 총 3억

8,200만 원이 지원되며, 총허용어획량을 준수하는 어선 11척엔 총 4억 1,900만 원을 지원한다.

끝으로,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은 10톤 미만 어선에 98만 원, 10톤 이상 어선에 150만 원 이내로, 총 471척에 5억 2,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청 해양수산과를 통해 문의하거나, 영덕군청 홈페이지 공지·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지역의 기초산업을 지탱해 주시는 어업인들께서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고 본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어촌의 활력을 되찾고 지역 경제가 튼튼해질 수 있도록 갖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문화/기자



# 봉화군, 소 구제역 예방백신 12월 수시접종 실시

## 12월 4일부터 15일까지 소 사육농가 326호, 1,830두 대상

봉화군은 구제역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12월 4일부터 15일까지 소 사육 농가 326호, 1,830두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12월 수시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제역 예방접종은 2개월령 이상 송아지를 위주로 실시하며, 접종 프로그램은 2개월령에 1차 접종, 4주 후 2차 접종, 그 이후 4~6개월 간격으로 진행하게 된다.

구제역은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항체양성을 기준치(소 80% 이상, 염소 및 번식용 돼지 60% 이상, 육성용 돼지 3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예방접종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소 5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군에서 백신을 일괄 구매 후 무상으로 공급

하여 공수의사 4명이 접종지원을 하고, 50두 이상의 전업농가는 안동봉화축협에서 백신을 구입해 자가접종을 하며, 전업농가는 백신구입 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10월 말 기준 군의 구제역 항체양성률은 소 98.05%, 돼지 90.1%, 염소 86.7%, 합계 94.4%로서 정부합동평가 목표값 90.0%를 상회하고 있다.

이승호 농정축산과장은 "올해 5월 충북에서 11건의 구제역이 발생했던 것과 같이 백신 접종이 소홀하면 언제든지 구제역이 재발할 수 있다"며 "전업농가와 공수의사는 책임감을 갖고 대상개체가 한 마리도 누락되지 않도록 집중하여 항체양성률 기준 미흡으로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없도록 구제역 백신접종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 울진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 및 액션그룹 간담회 개최



울진군은 지난 1일 울진군청 중회의실에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 및 액션그룹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진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중간 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울진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국비 49억원, 군비 21억원 등 총 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친환경공동체를 통한 활력 넘치는 울진을 비전으로 친환경공동체 인재양성, 역량강화 및 운영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사람과 조직을 통한 농촌 사회에 새로

운 활력을 불어넣는 자립형 혁신 거점 육성 전략사업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업 현황 및 추진 과정에 대한 설명, 액션그룹 대표사항 청취 및 발전 방향 논의 시간을 가지며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중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울진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성공을 위해 액션그룹들이 각자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울진군도 인프라 구축 및 홍보·마케팅 등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장문화/기자



# 경북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에 총력

## 위기단계 “심각” 격상에 따른 'AI 방역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경북도는 지난 11월 30일 전북 전주 만경강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되어 농식품부에서 12. 1일자로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와 철새 이동경로가 유사한 일본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증가하고 겨울철새가 본격 도래하여 야생조류 검출 및 가금농장 발생 위험도가 매우 높아졌다.

이에 경북도는 12월 1일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방역대책본부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며 총 6개반(종합상황반, 방역대책반, 유통수급반, 행정지원반, 홍보반, 인체감염대책반)으로 구성해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긴급 방역조치로 철새도래지 예찰 및 주변 도로와 농가 진출입 등에 대해 소독을 강화하고, 가금농장 정밀검사 주기 단축과 전 축종 출하 전 정밀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12월 1일부터 11일간 오리농장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육용 오리 출하기간을 3일에서 1일로 단축해 위험 요소 노출을 최소화한다.

방역 취약지구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전국 가금 사육농가에 대해 방사사육을 금지(행정명령:12.4.)하고, 전통시장·계류장 '일제 휴업·소독

의 날' 운영을 강화(월 2회 → 매주) 한다.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가금농장에 사람·차량 출입제한 등 이미 발령한 행정명령(10건)과 방역기준 공고(8건)를 위반한 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분된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

엔자가 확진됨에 따라 가금농장에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축사 내외부 4단계 소독과 농장 출입차량·사람 통제를 철저히 하고, 농장에 야생조류 차단을 위한 그물망 정비, 문단속 및 소독 등 차단방역 수칙 준수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 겨울 크리스마스 여행 '남해 어때!'

## 1일부터 14일까지 남해 숙박대전 매일 200명 선착순 할인



남해관광문화재단은 따뜻한 남해를 겨울 여행지로 부각시키기 위해 남해각~남해읍~독일마을을 연결한 '남해 크리스마스 페스타'를 개최하는 한편 이와 연계한 '남해 숙박대전'까지 선보인다고 밝혔다.

남해관광문화재단은 12월 14일부터 25일까지 남해 겨울여행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남해각과 독일마을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고, 남해를 일일에서는 캐럴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펼칠 계획이다.

특히 개막식이 열리는 오는 12월 14일 17시 30분부터는 (구)화전별당에 조성된 크리스마스 동산에서 '하얀 눈'을 만날 수 있다.

신나는 캐럴과 함께 산타 모자 꾸미기,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 등 신나는 체험행사가 열리고 군고구마와 봉어빵 등이 구비된 따뜻한 먹거리존도 마련된다.

이에 앞서 12월 1일부터는 대한민국 대표 종합 여행·여가 플랫폼 '여기 어때!'와 손잡고 남해군 내 입점한 숙소를 대상으로 한 '남해 숙박대전'이 펼쳐진다.

5만원 숙박 쿠폰이 매일 선착순 200명에게 제공되며, 쿠폰 발급은 1일부터 14일까지다. 발급받은 쿠폰은 1일부터 크리스마스 연휴를 포함한 26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여기 어때 앱'에 입점한 남해군의 모든 숙소에서는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바비큐를 즐길 수 있는 펜션부터 일출과 일몰의 낭만이 있는 호텔, 자연경관을 즐기기에 좋은 캠핑장 등 다양한 테마의 숙소가 준비되어 있다.

남해여행의 시작과 끝을 담당하는 여행자 플랫폼 남해각에서는 12월 14일부터 대형 트리를 만날 수 있다. 남해대교와 어우러져 멋진 포토존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남해각 내부에서는 사전 신청을 받아 '친환경 종이 트리 꾸미기' 체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국적 여행명소로 인기 있는 독일마을 광장은 대형트리가 설치되고 독일마을 상가 거리 등을 중심으로 방문객을 맞이할 계획이다.

남해 크리스마스 페스타에는 남해군 소상공인연합회도 힘을 보탠다. 1만원 이상 구입 시 500원 할인을 해주거나 기간 내 가게를 찾은 어린이 손님에게 사탕을 주는 등 작은 즐거움을 선물할 예정이다.

남해관광문화재단은 참여사업체를 12월 5일까지 모집한다.

남해관광문화재단 조영호 본부장은 "따뜻한 남쪽지역에서 맞는 겨울여행 상품을 위해 남해 크리스마스 페스타를 숙박대전과 함께 개최하게 됐다"며 "남해각과 독일마을, 남해읍에서 열리는 크리스마스 페스타는 겨울 녹색 경관을 자랑하는 남해의 자연과 독일마을의 이국적 모습이 어우러져 다채로운 겨울 매력을 선보일 것"이라며 남해 겨울 여행을 추천했다.

이영준/기자

# 부산시,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성과보고회 개최

## 12.5. 15:00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



부산시는 5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3년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사업은 이동형 초음파 및 엑스레이 등 전문 검사장비를 탑재한 의료버스 5대를 활용, 전문 의료진이 취약계층을 방문해 검진, 상담, 교육 등 지역 밀착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민선 8기 부산시장 공약사항인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사업'의 한 해 추진 성과를 사업 참여 관계자들과 공유하고, 내년도 사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사업 운영 의료기관 및 협력기관, 전문가자문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말씀 ▲표창장 시상 ▲성과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시는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사업을 각 의료버스 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의 발판을 마련하

기 위한 운영체계를 표준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 ▲민간 위탁 추진 ▲데이터 컨설팅 추진 ▲지역 보건의료자원 연계에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의료버스 네트워크 포럼 개최 등을 추진했다.

아울러, 의료버스 운영을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 범위 또한 더욱 확장했다.

기존 3대의 의료버스를 5대로 확대했고, 복지관 및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고령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했던 작년과 달리 복지관을 포함해 경로당, 쪽방촌, 이동노동자 쉼터, 노숙인 쉼터 등을 이용하는 폭넓은 계층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힘써왔다.

특히, 의료기관을 찾아가기 어려운 금성동, 선두구동과 건강지표 취약지역인 서동 등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구(군)

의 사업과 연계해 지역의 보건의료자원 연결하는 등 시민의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올해는 새마을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 부산세계장애인대회, 글로벌헬스케어 위크, 따뜻한부산 의료정보박람회, 부산사회서비스 박람회 등 많은 행사에도 참여해 사업을 홍보하고, 우수성을 알렸다.

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의료버스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주시는 의료진과 관계 기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보고회가 타 기관의 사례를 보며 상호 협력·발전해가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라며,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사업이 시민을 위해 달리는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내년도 내실 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희태/기자

# 한국 현대 조각의 산증인 '최병상 작가' 대표작품 포항시에 기증

포항시는 5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최병상 작가 작품 기증식'을 열었다. 이번 기증식은 지난 5월에 열린 포항시립미술관 스티븐 작가 조망전 '기도하는 마음으로, 최병상'을 계기로 이뤄졌다.

최병상(86) 작가는 17년 만의 개인전이 자신의 작업 세계 전체를 정리하는 회고적 성격의 전시 '기

도하는 마음으로, 최병상' 개최 중 기증 의사를 밝혔다.

출품작 중 본인의 초기작인 1960년대 철 용접 조각부터 2000년대 변

환기의 홀로그램, EL(전기발광, Electro Luminescent) 등 테크놀로지를 도입한 금속조각까지 작업 세계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대표작품 총 18점을 포항시립미술관에 기증했다.

기증자인 최병상 작가는 한국 조각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용접 조각의 산증인이다. 1957년 서울대에 입학해 대학 2학년년부터 철 용접 조각을 선보였으며, 1959년 제8회 국전에서 철판 조각을 모아 제작한 '대지'로 특선을 수상해 조각

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 후 서울대 선우배와 함께 '현대공간 회화' 창립회 파격적인 형식의 작품 제작과 새로운 조형 언어로 한국 조각의 저변을 확장했다. 작품 활동 외에도 교육자로서 1971년부터 2002년까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후학양성에 힘써왔으며 1990년 국내 최초의 환경조형물 연구사 '환경조각'을 출판한 바 있다.

최병상 작가는 "지난 작품전 당시 저의 작품 18점을 포항시립미술관에서 관리해 주겠다는 지극한 배려에 감격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포항 시민들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면서, "저는 여생을 바쳐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장은 "무엇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귀한 작품을 기증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 최병상 작가님의 뜻이 오래도록 시민들 곁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윤태용/기자

# 대구시 성서산단 노후 폐수관로 정비로 시민 불안해소 기대!

## (성서1차산단) 환경부 노후산단 폐수관로 정비사업 선정(총사업비 180억 원)

대구광역시 성서산단 폐수관로 노후화로 인한 지반침하, 균열, 싱크홀 등 환경·안전사고 예방과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노후 폐수관로 교체·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성서산단 폐수관로는 1992년 성서산업단지 조성 당시 기업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하단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이송하기 위해 매설된 관로로 통상적으로 설치한 지 30여 년이 경과하면 관로 노후화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점에 도달해 정기 정비가 매우 중요하다.

계획 수립 당시 성서산단은 지방산단이라 국비 지원이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 섞

인 목소리도 있었지만, 대구광역시 수질개선과에서는 시민 불안해소와 건강·환경을 보호하고 낙동강 하류 수질개선을 위해 성서1차산단 폐수관로 정비가 조속히 필요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부각해 중앙부처에 적극적인 건의와 설득·요청한 결과 환경부 국비 정비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총사업비 180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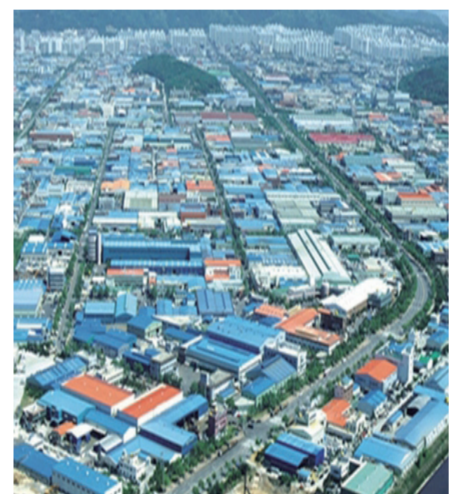
앞으로 성서1차산단은 관로 정밀조사와 실시계획을 거쳐 2025년 착공하여 2027년 공사 완료할 방침이다.

아울러, 나머지 성서2~4차산단에 대해서도 노후 정도와 시급성 검토를 거쳐

순차적으로 정기 교체 또는 보수를 추진할 예정으로 2035년까지 성서산단 전체에 대한 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총사업비 520억 원)

조상래 대구광역시 수질개선과장은 "설치된 지 30여 년이 경과한 성서산단 폐수관로 표본조사 결과, 관로 균열·함몰 등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성서산단 노후 폐수관로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낙동강 수질개선 효과와 더불어 산단 내 기업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안동관광두레 사업 세번째 성과, 팔사 카페 '사휴원' 오픈

## 국내 최초 팔사 전문 카페, 퇴계선생의 용천혈 마찰법 활용

안동시와 안동관광두레센터는 지난 달 30일, 안동관광두레 지원사업체 '사휴원' 오픈 파티를 개최했다.

'사휴원'이라는 브랜드는 선비들의 쉼터라는 의미로 만들어졌다. 카페형 팔사 체험장 사휴원은 퇴계 선생의 용천혈 마찰법을 활용하여 일상에 지친 현대인에게 단순히 굶는 행위만으로도 건강을 되찾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안동의 재료를 활용한 음료와 다과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안동관광두레에서 진행을 도운 다양한

업종의 관광사업체가 속속 오픈하면서 안동 관광 산업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지난해 선정된 5개의 관광사업체 중 기념품샵'안동단'과 여행자 카페'나르므로'에 이어 팔사체험 카페 '사휴원'이 이날 오픈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고 남은 2개의 사업체도 연말까지 오픈한 후 홍보마케팅에 집중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픈 파티 행사에서는 사휴원의 오픈을 축하하고 사휴원만의 이색적인 팔사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특히 안동만의 특색 있는 스토리를 입혀 퇴계

선생이 수행하던 다양한 방법들을 현대의 관점에서 되살리는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또한, 이날 행사에 참여한 관광두레 사업체들은 향후 서로 협업에 대하여 긴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등 안동 관광 활성화 위한 비전을 공유했다.

안동관광두레사업은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하나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자원의 연계를 통한 주민 공동체 중심의 관광사업체 육성 사업으로 각종 교육·컨설팅·마케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안동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는 관광사업체 지원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며, "퇴계 이항 선생의 건강 비법을 다과와 함께 즐기면서 안동을 다녀가실 때는 몸도 마음도 힐링하시는 즐거운 안동 여행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조각가 최병상 교수 작품 기증식



# 영등포구, 연말 재즈 가득한 합창 무대로 구민에게 힐링 선사

귀에 익은 가곡, 재즈, 클래식 하모니 선사...재즈밴드의 깜짝 공연까지



영등포구가 12월 7일 영등포아트홀에서 열리는 구립여성합창단의 '제16회 정기연주회 -Jazz&Love-'로 구민들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재즈 향이 가득한 합창 무대를 선보이는 이번 연주회는 합창부터 솔로곡, 이중창, 가곡, 특별 무대까지 감동과 대중성, 즐거움을 한데 모았다.

먼저 1부는 로맨틱한 재즈곡인 '니다로스 재즈미사(Nidaros Jazz Mass)'로 시작된다. 고전적이면서도 감성 넘치는 재즈 선율에 신디사이저의 풍부한 멜로디가 더해진 연주로 관객들의 공연에 대한 기대감과 감동을 한껏 끌어올린다.

이후 설레는 사랑 고백을 낭만적으로 표현하는 소프라노 김예인, 메조소프라노 염은유의 독창 무대가 전개된다. 연이어 두 성악가가 천상의 화음과 우아함으로 '라크메'의 '꽃의 이중창'을 펼쳐며 1부의 막을 내린다.

2부에서는 각종 오디션 서바이벌에서 불려져 관객들의 귀에 익숙한 '박영주'의 '마음', '최진'의 '시간에 기대어', '그대가 알지 못하는 사람'

등 관객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가곡이 연이어 펼쳐진다. 또한 깜짝 무대로 이한진 재즈밴드가 출연해 '왓 어 윈더풀 월드'(What A Wonderful World) 등 광고, 예능, 영화로 유명한 재즈곡을 공연한다.

한껏 흥겨움이 달아오른 3부에서는 재즈풍의 편곡이 입혀진 탱고, 삼바로 관객들의 귀와 가슴을 두드린다.

한편 이번 무대의 주인공인 '구립여성합창단'은 2005년 창단한 이래 20여 년 동안 여러 행사의 축하공연에 함께하며 영등포의 문화 예술 수준을 한 단계 높여 왔다. 또한 여러 대회에서 수상을 하며 검증받은 실력으로 구립합창단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연말을 맞아 구에서 특별한 공연을 많이 준비했다"라며 "감성 충만한 겨울밤, 구립여성합창단의 감미로운 재즈와 합창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들으며 재충전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박황신/기자

# 서울 중구, '권위 있는 부모 되기' 명사 초청 특강

12일 중구교육지원센터에서 임상수사심리학자 김태경 교수 초청 특강

서울 중구가 임상수사심리학자인 김태경 교수를 초청해 오는 12일 오전 10시 '명사 특강 부모교육'을 개최한다.

김태경 교수는 '올바른 부모가 올바른 아이를 만든다'라는 주제로 바람직한 양육 태도에 대해 강의한다. 초보 부모가 이해하기 쉬운 '권위적인 부모'와 '권위 있는 부모'의 개념을 구분하고, 자녀에게 '권위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한 전략을 강의한다. 특히 오랜 상담 경험을 토대로 한 경험과 공감 방법을 전수하고, 이를 자녀 양육에 활용하는 법도 알려줄 예정이다.

김태경 교수는 임상심리학자로서 범죄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돕는 일에 힘을 쏟는 한편 형사사법기관의 의뢰를 받아 가해자와 피해자의 심리·진술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TV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PD수첩', '궁금한 이야기 Y' 등에 출연해 범죄에 대한 대중의 인식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기도 하다.

강의는 중구교육지원센터에서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여 신청은 중구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그동안 각 분야 명사를 초청



해 다양한 주제로 부모교육을 이어오고 있다. 뇌과학자 장동선 교수의 '챗GPT시대의 교육법',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의 '우리 아이 범죄에서 지키기', 서경덕 교수의 '역사 홍보 특강' 등을 진행해 교육에 참여한 부모에게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자녀 양육에 고민이 있는 부모님들께 이번 교육이 단비 같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다양한 주제로 유익한 교육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강성원/기자

# 성북구 드림스타트, "엄마랑 손잡고 걷자" 아동통합사례관리 분야 대상 수상

2023년 드림스타트 전문화·특성화 과정 현장적용 실천사례 공모전

서울 성북구 드림스타트가 지난 11월 29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최한 2023년 드림스타트 전문화·특성화 과정 현장 적용 실천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2022~2023년 드림스타트 전문화·특성화과정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드림스타트의 현장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교육콘텐츠 개발·확산을 위해 개최됐다. 아동 통합사례관리 분야와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분야에서 1차 내부 심사, 2차 내·외부 심사를 거쳐 총 16명을 선발해 시상했다.

성북구 드림스타트는 아동 통합사례관리 분야에서 이경숙 사례관리사가 주경환경이 취약한 미혼모 세대의 고립 아동에 집중하며 사례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제적, 예방적으로 실천한 사례관리 과정으로 대상을 수상받았다.

이경숙 사례관리사는 "성북구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로 10년을 근무하며 경험하고 실천한 내용을 담아 이번 사례 공모전에 참여했는데 대상 수상이라는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라며, "성북구 드림

스타트 현장 슈퍼바이저로서 출신수범하며,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의 손을 잡고 더욱 열심히 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승로 구청장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례관리 역량 향상 노력으로 이번 공모전에서 대상 수상의 성과를 이루어 냈다"라며 앞으로도 성북구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성북구 드림스타트에서는 내·외부 슈퍼비전 체계를 구축하고, 12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 임산부를 대상으로 신체·건강/인지·언어/정서·행동/부모·가족 등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강성원/기자



# 전국에서 인정받은 관악구, 고독사 예방 '최우수' 우수사례로 선정!

가족체제와 1인가구 비율 증가로 고독사 발생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관악구는 고독사 예방과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1월에는 '관악 생명사랑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고독사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며 주민들의 안전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

또한 구는 ▲고독사 예방 민관 협의체 구성 ▲고위험군 집중 모니터링 ▲고위험군 안부확인 전담인력 보강 ▲안부확인인구 식사지원을 결합한 '행복한 한 끼 나눔' ▲고립, 은둔 가구 사례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기획, 추진해왔다.

지난 11월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인식 교육'을 실시, 직원들의 고독사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도 했다.

최근 구는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주관 '지자체 고독사 예방 사업 우수사례 평가'에서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기반 구축 분야'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우수사례 평가는 고독사 예방 우수사례를 발굴, 공유하고 고독사 예방 업무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구는 지난 11월 30일에 열린 '제2차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포럼'에 참석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고독사 예방 담당자, 통합사례관리사 등 앞에서 우수사례를 발표, 구의 노력을 전국에 알렸다.

박준희 구청장은 "더욱 촘촘한 복지서비스와 따뜻한 지역공동체 조성으로 많은 주민이 향상된 복지행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경북의심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동해안 청정해역! 안전한 우리 수산물!

# 우리 수산물

## 안심하고 드세요!



충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식 개최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한 20개 우수기업 인증

충청북도는 올해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 인증(20개소)과 유공자(9명)를 포상하기 위해 5일 2023년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식을 개최했다.

이날 인증식 행사는 김영환 충북지사, 기업대표, 노인회 취업지원센터장, 일자리수행사업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기업 인증, 우수시군 및 유공자 표창, 우수사례 발표 등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올해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20개 기업이 선정됐으며, 인증업체에는 인증일로부터 2년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금리우대(0.5%), 지방세세무조사유예(2년), 해외시장 판촉지원 등 우대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한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대표는 "초고령 시대에 노인 고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며, 그들이 각 분야에서 수년간 일하며 얻은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어르신과 꾸준히 함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창출 시군 성과평가를 통해 최우수 기관으로 진천군, 우수 기관으로 제천시와 보은군이 선정되어 기관 표창을 받았고, 그 동안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6명)에게도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김영환 도지사는 "노인의 가능성을 찾아 일자리와 연계함은 물론 기업의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해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도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4년부터 시행한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는 도내 우수한 기업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며 지난해까지 24천여 건의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해왔다.

고정화/기자



강원도, 산업융합 · 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 해소방안 논의

강원특별자치도·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실, 기업규제개선 합동토론회 개최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해소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와 산업통상자원부(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실)가 만났다.

강원특별자치도는 12.1 오후 2시 춘천세종호텔에서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실과 함께 산업융합·신산업분야 규제해소 방안 및 개선을 위한 합동토론회를 가졌다.

올해 상반기(3.24.) 개최된 도·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실 간 신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 및 토론회에 이은 두 번째 만남이다.

이날 자리에는 이주연 강원특별자치도 기업호민관, 윤정민 국가산업융합센터 산업융합기반실장을 비롯해 유관기관, 각계 전문가, 기업대표 등 20여명이 열띤 논의를 펼쳤다.

토론회에 앞서 당면 토론회제 중 하나인 소양강댐 수력에너지 실증센

터를 방문하여 에너지 절감 연구 현황을 직접 점검하기도 했다.

본 토론회에서는 소양강댐 용수 온도차를 활용한 수열의 재생에너지 인정범위 확대와 재난·응급상황시 휴대용 진단방사선장비(X-ray) 취급 범위 확대 안전 2건이 제시되어,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재한 이주연 강원특별자치도 기업호민관은 지난해 12월 위촉된 이후, 도내 18개 시군 130개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68건의 규제안건을 발굴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날 토론회에서는 논의된 안건들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에 직접 규제사항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원/기자

충남도, 세계무대에 펼친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김태흠 지사, COP28 참석 각국 대표 만나 충남의 선도 정책 설명

제28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세계 각국 지방정부 대표 등 유력 인사들을 만나 '탄소중립 외교'를 펼친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4일 베트남으로 이동, 동남아 일정을 시작했다.

김 지사는 이번 두바이에서의 활동을 통해 세계에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충남'을 알리고, 국제 협력 확대 발판을 다졌다.

5일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1~4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COP28에 세계 지방정부 대표로 특별 초청받아 참석하고, 2023 언더2연합 총회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공동의장으로 참석했다.

COP28 개막식에는 찰스3세 영국 국왕,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루이스 이나시우 룴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등 세계 각국 행정수반 등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COP28이 초청한 지방정부는 미국 워싱턴, 프랑스 파리, 일본 도쿄도, 폴란드 바르샤바 등 세계 주요국 수도 시장·도지사 12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김 지사가 유일하다.

COP에서 지방정부를 특별 초청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세계에서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 중인 지방정부 12곳을 추려 초대장을 발송했다.

김 지사는 먼저 지난 2일 두바이 엑스포시티 블루홀에서 열린 COP28 지방정부 기후행동 정상회의 개막식에 앞서 마이클 블룸버그 유엔 기후변화특사를 만나 탄소중립 정책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블룸버그 특사는 미국 기업인이자 정치인, 전 뉴욕시장, 블룸버그 창립자 및 CEO 등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인물이다.

김 지사는 블룸버그 특사에게 충남의 탈석탄 에너지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을 소개했으며, 블룸버그 특사는 김 지사에게 "당신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변한다. 건승을 기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세계 각국 지방정부 대표들과는 탄



소중립 국제 협력을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같은 날 COP28 지방정부 기후행동 정상회의 세션에서 레나토 카사그란데 브라질 에스피리토산투스지사, 마우리시오 쿠리 곤잘레스 멕시코 케레타로주지사, 헬렌 클락스 언더2연합 사무국 CEO, 홀자 유사프 스톡홀랜드 행정수반, 앤 와이그루 케냐 키리냐가현지사, 웨이드 크로우 풋 미국 캘리포니아 천연자원부 장관, 테클라 워커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환경부 장관 등과 머리를 맞댔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도의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선도 배경과 이를 위한 활동 등을 설명한 뒤 "기후재난에 책임 있는 국가들이 개도국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선진국들의 책임감 있는 이행 방안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3일 두바이 인터컨티넨탈 페스티벌시티 호텔에서 열린 언더2연합 의장단 회의와 총회에서도 선진국의 의무를 강조했다.

헬렌 클락스 언더2연합 CEO, 홀자 유사프 스톡홀랜드 행정수반, 노무사 누베 은쿠베 남아프리카 과줄루나탈주

총리 등 세계 각 지역 의장과 지방정부 대표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김 지사는 "지방정부 기후재정 조성에 선진국 지방정부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 보령에 건립 추진 중인 세계 최대 블루수소 생산기지(플랜트)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기업 및 국제기구와 손을 맞잡으며 성공 추진 발판을 확보했다.

김 지사는 지난 2일 두바이 엑스포시티 블루홀 한국홍보관에서 로저 마르텔라 미국 GE 베르노바 부사장, 도미니크 루즈 프랑스 에어리퀴드 부사장, 권형균 SK E&S 부사장, 김광일 한국중부발전 부사장 등과 청정 블루수소 글로벌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협약식에는 김상협 대한민국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파티호 비를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 데이비드 리빙스턴 미국 에너지 수석고문 등도 참가해 보령 블루수소 플랜트 건립에 대한 지원의 뜻을 밝혔다.

협약식에서 김 지사는 "이번 협약은 탈석탄 에너지 전환과 산업 재편의 첫 출발"이라며 "협약 내용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령 블루수소 플랜트는 SK E&S와 중부발전이 2026년 말까지 5조 원을 투자해 보령발전본부 북부처리장 62만여㎡의 부지에 건립한다.

이 플랜트에서는 연간 25만 톤의 수소를 생산, 20만 톤은 수소연료전지 발전에 투입하고, 5만 톤은 액화 후 자동차 충전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동남아에서 김 지사는 베트남·라오스 중앙·지방정부와 교류·협력 관계를 넓히며 경제영토 확장을 살피고, 도내 농촌 현안에 대한 해법도 모색한다.

4일 두바이에서 베트남 호치민으로 이동한 김 지사는 5일 하노이를 거쳐 박장성을 방문한다.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1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이번 방문에서 김 지사는 레 아인 즈영 박장성 성장을 만나 우호협력 협정을 체결, 베트남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관계를 북부까지 확장한다.

도는 베트남 남부에 위치한 룡안성과 2005년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이후 지속적으로 교류·협력을 추진 중이다.

박장성에서는 또 아산에 본사를 둔 반도체 후공정 전문 기업인 하나마이크론의 제2공장을 방문해 임직원을 격려하며, 베트남 북부권 도내 기업인과의 간담회도 갖는다.

이어 베트남에서 라오스로 이동하는 김 지사는 7일 라오스 행정수반인 손싸이 시판돈 총리를 접견한다.

또 바티캄 카티야 노동사회복지부 장관, 팻 폼피카 농림부 장관, 마라이통꼴마시 산업통상부 장관 등 라오스 정부 각료를 잇따라 만난다.

김 지사의 이번 방문은 라오스 정부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총리 및 장관 등과 기후변화 공동 대응 △계절근로자 확대 운영 △축산 분야 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동남아 출장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충남세마유회 등의 라오스 봉사활동 현장을 찾아 격려의 뜻을 전한다.

최정근/기자

태백시, 탄탄페이 전월 대비 180% 증가!

태백시는 11월 한달간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탄탄페이) 구매현도와 인센티브 지급률을 상향하여 운영한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1월 한 달 동안 구매현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 인센티브는 10%에서 15%로 상향 운영했으며, 그 결과 탄탄페이 총 사용금액은 67억 7천 6백만원, 인센티브 지급액은 9억 9천 만원으로 지난 10월 대비 180% 이상 증가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일 평균 1억 2천만원 사용하던 것을 11월에는 하루 2억 2

천만 원가량 사용했고, 올해 7월 연 매출액 30억원이 넘는 하나로마트, 대형 식자재 등을 사용처에서 제외하면서 지역소규모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갔다"고 말했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코로나19,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힘겨운 지역경제에 희망을 싣틸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지속 확대하여 지역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태백시민들과 관내 소상공인들

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비수단으로 자리잡은 탄탄페이는 지난 2020년 4월 도입하여 2023년 11월 현재 누적 발행규모 2,583억 원이 넘었으며, 60대 이상 연령층도 전체 사용금액의 30%로 나타나 고령층에서도 탄탄페이 사용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상근/기자



원주시. 밝은 야간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조도 개선 사업 연말까지 마무리

원주시는 시민들이 마음 놓고 거닐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11월까지 가로등 3,178개를 교체한 데 이어 올해 안에 292개를 추가 교체하여 2023년 원도심 조도 개선 사업을 마무리한다.

시는 밝은 야간 보행환경을 조성해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자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공간인 대로변, 원주천, 공원, 동 지역 등에 조도 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조도 개선 사업을 통해 도로 조명

등 야간에 원도심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도로조명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올해 조도 개선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된 단계동, 단구동, 명륜1·2동, 무실동, 반곡관설동, 태장2동, 행구동은 내년에도 조도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원주시는 조도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6월 야간에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사업비 2억 원을 들여 무실동, 단계동, 일산동, 태장동, 단구동 공원에 있는 노후 램프 900개를 교체한 바 있다.

박경귀 시장 "국토교통부, 아산시 도시개발특례 인정해야" 1인 시위

박 시장, 행정안전부 이어 국토교통부 향해 도시개발특례 당위성 호소

박경귀 아산시장이 12월 5일 정부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정문 앞에서 1인 피켓 시위했다. 지난달 30일 정부 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앞 1인 시위에 이어 두 번째 장외집회이다.

아산시는 행정안전부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권 특례 지정을 신청한 상태다.

현행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으로 규정되어 있다.

아산시는 탕정 국가 신도시 개발, 디스플레이 특화산업단지 지정, 경제자유구역 거점 구축 등 9백73만㎡, 14개 지구의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경찰병원 분원 건립으로 대표되는 पुलिस 메디컬 복합타운 조성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아산시는 급증하는 도시개발 수요에도 불구하고 '인구 50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충남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아산시의 도시개발구역 지정권 특례 지정 신청에 국토교통부는 '아산시와 천안시 경제 간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하기 때문에 아산시 도시개발 사업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이에 아산시는 "도시개발 입안 단계에서 상위 계획 및 법령에 부합하도록 충분한 고려를 거치고 있으며, 도시개발 사무 특례가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인접 지자체 및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필수적으로 진행하므로 특례 부여가 독단적 행정으로 지적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박경귀 시장의 1인 시위는 국토부에 다시 한번 아산시의 절실한 상황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박 시장은 "아산시에서는 전국 2위 규모의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인구 50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명확하고 실질적인 도시개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도시개발 사무특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어 "특례제도는 '특별한 상황'을 배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고, 아산시는 그 어떤 시·군보다 그에 부합하는 도시"라면서 "국토부의 우려에 아산시는 충실히 답변했다. 국토부는 우려를 거두고 아산시의 특례하고 절실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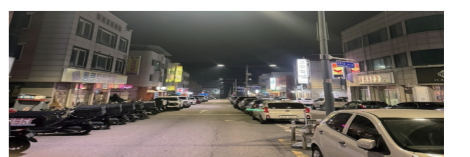
아산시는 박경귀 시장의 1인 피켓 시위 외에도 도시개발 사무특례 의사를 특례심의위원회와 관련 부처 및 기관 등에 지속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김원호/기자



원주수 원주시장은 "이번 조도 개선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한층 밝아진 야간 보행환경을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원주천 둔치나 인근 공원에서 마음 놓고 산책도 하면서 달라진 일상을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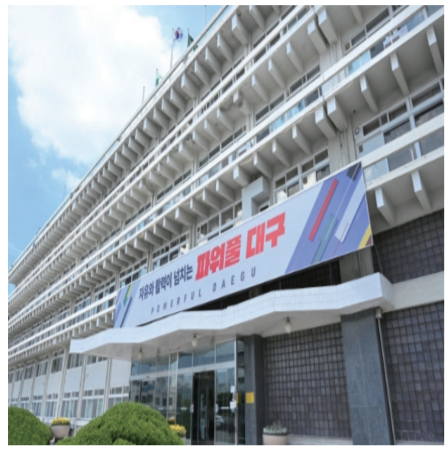
김정환/기자





# 대구광역시, 겨울철 의료기관 화재예방 안전점검 실시

### 300병상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 217개소 대상 안전점검 실시



대구광역시는 지난 11월 28일(화)부터 300병상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9개반 18명의 점검반을 구성

해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의료기관 화재 발생을 고려해 300병상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 217개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의료기관 자체 점검, 구·군 보건소 현장점검, 유관기관 합동점검 형태로 진행한다.

이 중 스프링클러 미설치 의료기관, 복합건물 내 요양병원,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은 의료기관, 기타 화재발생 취약 의료기관 27개소에 대해서는 구·군 보건소 현장점검이, 일부 취약시설은 보건복지부-대구광역시-보건소 합동점검이 예정돼 있다.

점검 항목은 ▲의료기관 시설 규격

▲안전관리 일반사항 ▲환자 대피 및 이산 대책 ▲정전사태 대비 ▲화재 안전사고 교육훈련 ▲소방분야 점검 ▲기타 등 7개 분야 32개 항목이다.

점검 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시정 예정이며, 신속 보완 후 추후 조치에 대한 확인은 '24년 1월 이후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의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은 의료기관의 경우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미흡한 부분은 신속한 보완을 통해 겨울철 화재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서초구,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횡단보도'로 개선

스쿨존 내 옐로카펫, 노란색 경계석, 노란색 불라드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

서울 서초구가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 신설 및 옐로카펫 확대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개선했다.

구는 10월 도로교통법 개정시행을 앞두고 관내 모든 초등학교 주변의 횡단보도를 노란색 횡단보도로 연내 설치 완료했고, 이를 통해 운전자에게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함을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구는 이외에도 노란색 횡단보도 주변으로 ▲옐로카펫 확대 설치, ▲노란색 경계석 안내판, ▲노란색 불라드 설치 등을 추진하여 어린이보

호구역 내 시인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구는 사업시행 이전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위해 올해 각종 구민 요청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올해 세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공단(서울특별시지부), 서초경찰서, 방배경찰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참여하여 어린이보호구역 합동점검 실시하는 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안을 도출했다.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외에도 구는 다양한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을 완료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급경사 통학로에 보도 확장 및 신설 ▲관내

모든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표시 ▲운전자의 감속이 필요한 6개 지점에 과속경보표지(DFS) ▲190개 지점에 태양광LED표지로 개선 ▲무단횡단사고 방지를 위해 8개소(600m) 방호울타리 설치 ▲51개소에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12개소에 음성안내보조장치 설치 등을 완료했다.

전성수 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 등 다양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서초구가 최우선으로 적용하고 선제적으로 개선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게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후수/기자



# 광주광역시 남구, 동절기 '노인 의료시설·주간 보호센터' 점검

### 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안전 확보 차원

광주 남구는 겨울철을 맞아 화재 등 재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노인 의료복지시설과 주간 보호센터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5일 남구에 따르면 동절기 노인 의료복지시설 및 주간 보호센터에 대한 안전 점검이 내년 1월 19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점검은 시설물 관리주체의 자체 점검과 구청 업무 담당자의 현장점검, 정부 및 지자체, 전문가가 함께하는 민·관 합동점검 순으로 단계별 진행된다.

점검 분야는 안전 점검표에 따라 안

전관리 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자 교육 훈련, 책임보험 가입 여부, 소방·전기·가스 안전 관리, 동절기 재난대응 대책, 시설물 안전 관리, 급식위생 안전 관리, 감염병 관리 대책 등이다.

남구는 먼저 관내 노인 의료복지시설 13곳과 주간 보호센터 21곳의 시설물 관리자에게 오는 12월 19일까지 자체 점검한 뒤 희망이음시스템을 통해 점검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남구는 이 결과를 토대로 오는 12월 20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자체 점검 대상 중 유형별 시설의 15% 범

위에 해당하는 노인 의료복지시설 2곳과 주간 보호센터 3곳을 랜덤 샘플링해 현장 점검에 나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에 20년 이상 노후시설과 50인 이상 거주시설, 하절기 안전점검 결과 재검검이 필요한 시설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시설 보완 및 개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에게 해당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기능보강 사업 등을 통해 지원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며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해 내실 있게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수/기자

# 해남군, 2024 민선8기 핵심사업 속도높여 돌파성장 이루자

### 2024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회, 내년 387건 분야별 추진계획 전략 수립



해남군이 내년 군정의 핵심사업들을 점검하는 2024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착수했다.

4일부터 8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보고회에서는 명현관 해남군수 주재로 실과소장과 실무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다가오는 2024년 중점 추진할 387건의 역점업무의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전략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한다.

군은 민선8기 반환점을 도는 내년의 장기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감안해 그동안 추진해 온 현안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 돌파 성장의 해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핵심사업들에 대한 차질없는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2024년은 민선8기 핵심사업들이 완성되어 가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주변 여건의 불

확실성을 뛰어넘는 돌파 성장과 미래장기성장동력의 확보를 목표로 주요 현안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내년 해남군 분야별 주요사업은 민선8기 군정의 주요 운영방침인 해남형ESG 윤리경영을 지속가능발전 체계로 구축하고, 경제활력과 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 화원산단 풍력배후단지 조성 등 대규모 정책사업과 투자유치사업을 더욱 가시화해 나갈 방침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농식품 수출기업 육성 및 해외 판로 개척, 통합RPC 추진, 농업기술 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땅끝한우 브랜드 육성, 수산기자재 클러스터 조성 등 농수축산업 전반에 걸쳐 농업 소득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관광분야에서는 캠핑카 시티투어 등 지속가능 관광콘텐츠 개발, 지역축제

발전전략 수립, 위케이션 센터, 반려동물 테마파크, 금강산 빛의 수변공원 등 신성장 관광산업을 지속 확충해 나갈 것이다.

또한 방문보건 서비스 확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복지 실현으로 따뜻한 해남을 조성하고,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 농촌생활권 개선사업, 어촌·어항 개발사업, 맑은 물 공급과 하수도 보급을 향상 등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지역개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갈 방침이다.

이번 보고회에서 제시된 주요업무는 보완·개선사항을 반영해 12월 말 최종 확정 후 군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명현관 군수는 "군민이 더 행복한 2024년을 만들도록 민선8기 공약사업과 역점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갑문/기자

화합으로 새로운 희망을진

대한민국의 **꿈, 울진**

2023 **죽변항 수산물축제**

가자, 죽변! 먹자, 수산물!

2023. 12. 15(금) ~ 17(일) 울진군 죽변면 죽변항일원

주최 | 울진군 주관 | 울진군경제발전위원회 후원 | 안수연씨회 울진자연본부 울진죽변수협

초대가수

안성훈, 요요미



### 전남교육청 “전남 작은학교 미래교육 선도 모델로”

전남남도교육청이 12월 9일부터 10일 이틀 동안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전국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2023. 전남 작은학교 교육박람회'를 개최한다.

'학생공감 작은학교, LOG-IN'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전남 교육 대전환의 희망이 담긴 작은 학교의 꿈과 미래를 보여주는 한마당 행사로 펼쳐진다.

박람회는 지역-학교 학생 현장관, 작은학교 주제관, 대전환 주제관 등 다채로운 80개 전시 및 체험 부스로 꾸며진다.

지역-학교 학생 현장관은 22개 교육지원청 50여 개 학교가 힘을 모아 작은학교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줄 예정이다.

또, 작은학교 주제관은 전남 작은학교, 전남농산어촌유학, 전남학생교육수당 등 전남교육청이 추진하는 작은학교 주요 정책을 소개한다.

이와 함께, 박람회 기간 중 이중언어 페스티벌, 작은학교 영화제, 온라인 수업 교류 등 전남교육청의 미래교육 대비 모습도 함께 볼 수 있다.

박종배/기자



## 경북교육청, 2023년 직업교육 성과공유회 개최

### 경북 직업교육과 함께하는 기업체와 고졸 취업 활성화 소통 만남의 장 마련



경북교육청은 5일 경주 하이코에서 직업계고 학생 취업을 지원하는 63개 기업체 대표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지속적인 취업 지원을 위한 '직업교육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직업교육 성과공유회는 직업교육에 참여 실적이 우수한 기업체와 함께 경북 직업교육 성과를 공유하고 직업계고 학생 채용에 대한 감사패 수여와 우수 사례 발표를 통해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감사패 수여 우수기업체로 △산학 일

체형 도제 기업에 참가한 기업 25개 △현장실습 선도기업 26개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에 참여한 기업 7개 △직업교육 혁신 지구 참여 기업 4개 △직업교육 우수 협력 기관 1개 등 63개 기업체를 선정하여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번 직업교육 성과공유회에서는 직업교육 혁신 지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주)자화전자 김성현 팀장이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사례'라는 주제로 산학연계 기업체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주)자화전자는 '현장실습생의 성장경로를 제시하여 전문 자화인 육성'이란 비전을 설정하고 2023년은 지역 직업계고 우수 인재 확보, 2024년은 자화인 육성, 2025년에는 평생학습이라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제시했다.

윤근수/기자

## 경북교육청, 경북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표창패 수여와 연수회 개최

### 상담 활동 성과와 연수의 장 마련

경북교육청은 5일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경북 학생 상담자원봉사자 연합회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경상북도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표창패 수여와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표창패 수여와 연수는 경북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22개 지역연합회 회원이 모여 올해 우수 상담 활동을 한 봉사자를 시상하고 축하를 나누는 자리로 연수회를 통해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연수 1부에서는 최신 상담기법을 통해 학생을 이해하는 방법 등에 대한 특강과 사례 나눔, 실습 등의 역량 강화 연수로 진행됐다.

2부에서는 올 한해 노고에 대한 교육감 감사패와 공로패, 또 연합회장 표창장 등 총 66명 연합회 회원에게 시상이 있었다.

이날 행사를 통해 지회별 봉사 현황과 사업을 공유하고 연합회 발전과 청소년들의 인성개발을 도모하는 소통의 장이 됐다.

김준현 학생생활과장은 "이번 행사로 봉사자 회원들이 화합하고 상담 봉사활동에 자부심을 느끼는 시간이 됐길 바라며, 심리 정서적 위기 학생들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의 상담 활동에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4급 이상 장기교육과정 대상자 확대

### 미래 경기교육 준비를 위한 지방공무원 역량개발 기회 활짝

경기도교육청이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공무원의 역량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장기교육과정 대상자를 확대하고 교육 횟수와 인원을 최대 2배까지 늘린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4일 미래 경기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2024년 지방공무원 대상 장기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학습과 연구를 통해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해왔다.

교육부 위탁교육인 고급관리자과정, 교육정책전문대학원에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을 교육훈련을 위해 파견했고, 경기도올림픽교육연수원에서는 자체적으로 6급 지방공무원 장기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했다.

하지만 경기도 행정 규모에 비해 교육부에서 배정된 교육 인원이 적어 임태희 교육감은 균형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교육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배정정원 확대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 기존 인원인 5명 대비 40% 늘어난 총 7명을 고급관리자과정 배정정원으로 확보했다.

또한 자체 운영하는 6급 장기교육과정은 개편을 통해 올해부터 교육 대상을 전 직렬로 확대하고, 2024년부터 교육 횟수와 인원을 연 1회 40명에서 연 2회 80명으로 2배 늘렸다.

장기교육과정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연구를 통해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함양함으로써 미래 경기교육 정책개발과 현안 해결 능력 등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태희 교육감은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스

스로 변화와 역량개발이 중요하다"며 "이번 장기교육과정 확대를 비롯해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으로 지방공무원의 역량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상/기자



## 부산광역시교육청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 부산에서 열린다

### 시교육청, 교육부, 부산시 관계자 등 200여 명 참석



지역 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부 주관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가 부산에서 열린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6일 오후 1시 20분 구포돌봄센터, 북부교육지원청, 부산대학교 등지에서 하운수 교육감을

비롯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형준 부산시장 등 관계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부산형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찾기 위해 현장 방문, 사업 설명회, 간담회 등으로 열린다.

참석자들은 본격적인 설명회에 앞서 오후 1시 20분 야간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포돌봄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한다.

설명회는 오후 2시 부산북부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한다. 교육부 관련 부서장이 '교육발전특구'에 대해 안내하고, 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주미란 장학관이 '돌봄·교육 이음 프로젝트' 사례를 발표한다.

오후 3시 10분에는 부산대학교에서 글로벌대학 간담회가 이어진다.

한편, 부산교육청과 부산시는 지난 달 30일 첫 번째 교육발전특구 T/F

회의를 개최하며, 시범운영 지구 선정에 나섰다. 양 기관은 공교육 혁신을 통해 유·초·중·고 수준별 맞춤형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인재의 육성·정주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24시간 돌봄센터 등 지역 책임 돌봄 시스템 구축, 부산 7대 산업과 연계한 '부산국제K-POP고등학교', '부산항만물류고등학교' 설립, 지역 수요를 반영한 '자율형 공립고 2.0', '기숙형 중학교' 설립 등을 부산시와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하운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부산형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인재들이 부산에서 배우고, 이들이 부산에 정주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며 "이번 설명회가 부산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지역 선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영양 들머다보시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님들이

-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침백곡원, 측백수림, 외씨바실길
- 영양의 역사, 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견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제재민호보호공원, 빈대밭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일산자생화공원, 영양공력발전단지, 울림산자연휴양림, 영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 울산교육청, 학교(기관) 급식실, 행정실 260곳 위험성 평가

### 산재 위험 요인 찾아내 안전한 일터 만든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진행한 '2023년 위험성평가 상담(컨설팅)·정기점검' 용역 사업을 완료하고 5일 결과보고회를 열었다.

시교육청 창의계발실에서 열린 이번 결과보고회에는 김명환 행정국장장을 비롯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위험성평가 상담·정기점검은 학교(기관) 내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제공해 산재 사고를 예방하고자 기획됐다.

지난 3월 전문기관에 의뢰해 260개 학교(기관) 행정실과 급식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현업근로자(급식, 시설관리, 청소, 당직, 통학보조)가 참여해 직종별 작업 전반에 대한 현장 상담(컨설팅)도 진행했다. 그 결과 작업장의 위험성 크기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위험성 감소 대책을 세우도록 안내했다.

산업안전보건 정기점검은 2회에 걸쳐 이뤄졌으며, 1차 점검에서 위험요소 발굴·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2차 점검에서는 개선 여부(결과)를 점검함과 동시에 학교(기관) 자체 개선이 힘든 사안은 중장기 개선 과제로 제시해 실효성 있는 산업안전보건 점검이 이뤄졌다.

학교(기관)에서 지켜야 하는 안전보

건관리체계 수립, 안전보건표지 부착 여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 보호구 지급 등에 대해서도 상담해 학교(기관) 산업안전보건 업무 수행력 향상에 기여했다.

박봉국 안전총괄과장은 "학교(기관)의 모든 구성원이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규진/기자



# 서울시, '2023년 청년수당 확 달라져' 취업성공금 늘리고 멘토링 밀착지원 · 진로준비 강화

## 성과공유회 통해 청년수당 참여 소감, 성취 내역 등 우수 사례 공유 및 참여자 간 교류

사례1# 청년수당을 받기 전에는 밥 한 끼 굶고, 아파도 병원 갈 돈을 아껴 음악이라는 꿈에 투자했어요. 청년수당을 받게 된 후로는 음악에 사용할 돈을 줄여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청년수당은 내 마음의 여유를 위해 쓸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사실 부족한 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였을까 싶습니다. 청년수당 덕에 오랜 기간의 멈춤을 끝내고 다시 앨범을 낼 수 있었습니다.” (김○○, '23년 10월 싱글 앨범 발매)

사례2# “요리를 전공하고 음식점에 취업했지만 엄지손가락 인대가 잘리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재활도 했지만 트라우마와 손가락 상태로 더는 요리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공무원 준비를 시작했어요. 모야돈 돈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할 때 청년수당을 신청했습니다. 청년수당은 저 같은 취준생에게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합격”이란 두 글자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공무원 시험 합격)

사례3# “어릴 적부터 그림그리기를 좋아하던 저의 꿈은 그림 작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반대학을 진학하여 졸업했고, 뒤늦게 잊고 있던 그림에 대한 꿈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청년수당에 선정된 이후 온라인 그림 수업을 들었어요. 전보다 늘어난 시간, 경제적 여유로 수업도 즐겁게 듣고, 실력도 꾸준히 늘려갔습니다. 남들보다 늦은 시작이라 생각했지만 청년수당과 주변의 격려로 다시 한 번 더 힘을 냈습니다.” (송○○, 그림작가)

서울시가 올해 청년수당 참여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수당이 불러일으킨 일상의 변화와 성취 및 참여 소감 등을 전시, 영상, 발표, 토크콘서트 등의 형태로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2023 서울 청년수당 성과공유회-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의 나'는 6일 13시 서울청년활동지원센터(용산구 원효로1가, 2층 커뮤니티 홀)에서 개최되며, 청년수당 참여자 등 1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 청년수당은 만19~34세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 또는 단기 근로중인 청년이 다른 걱정 없이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 6개월간 매달 50만원씩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청년들의 자아실현 기회를 보장하는 사업이다. 2016년부터 진행된 서울 청년수당 지원사업은 대표적인 서울시 청년정책으로 올해 8년 차를 맞이했다.

올해 청년수당은 신청자 5만여명(1차 31,667명, 2차 22,265명) 중 2만여 명(1차 13,814명, 2차 6,196명)이 선정되어 6개월간(1차 4~9월, 2차 7~12월) 수당을 지원받았다.

특히 올해는 구직활동에 도움 되는 비금전적 프로그램 지원도 강화하여, 청년수당 참여자 중 희망자에 한해 ① 진로적성검사(캘린 강점검사, 버크만 개인 특성 진단), ② 직무별 현직자 월별특강 및 ③ 그룹형 멘토링(4개 직군, 그룹별 10명 내외)을 진행했다.

① 7~11월에 진행된 진로적성검사는 신청자 중 2백명을 선발하여 진행했다. 캘린 강점검사, 버크만 개인 특성 진단을 시행하고 코칭 전문가가 진단 결과 해석을 통해 참여자 강점을 강화하여 진로비전을 설계하도록 지원했다.

② 7~9월에는 5회에 걸쳐 카카오톡, CJ, 야놀자 등 현직자 특강을 열었고, 관심 있는 참여자라면 누구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참여 창구를 온·오프라인으로 넓혔다. 현직자 특강은 총 3,672명(온라인 3,443명 오프라인 229명)이 들었다. 특히 이번 현직자 특강 강연자 중 두명(jtbc 스토리텔 PD, 카카오톡 서비스 매니저)은 청년수당 전년도 참여자로 청년수당을 받으며 취업 준비를 했던 경험 등을 진솔하게 밝히 이목을 끌었다.

③ 올해 8월 시범적으로 운영된 그룹형 멘토링 프로그램은 4개 직군(나이지 기획, 아모레퍼시픽 영업&마케팅, 카카오프로그램 개발, 레고 SCM) 대기업 현직자가 10명 내외 청년에게 한달 간(총 4회) 취업 준비를 위한 멘토링을 집중 지원했다.

올해 청년수당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여자의 88.1%가 전반적으로 사업에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97.8%가 지인에게 사업을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금전 지원은 90.6%, 비금전적 프로그램 지원은 88.2%(① 진로적성검사 89.0% ② 현직자특강 87.7% ③ 그룹형 멘토링 87.9%)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참여자의 96.9%가 청년수당 지원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이번 6월에 열리는 청년수당 성과공유회는 지난 '16년 사업이 신설된 이후 처음으로 마련되는 청년수당 참여자 간 교류의 장이다. 참여 청년이 본인의 생각과 경험을 다른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청년수당이 보장해준 6개월의 시간과 의미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정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고자 기획했다.

공유회에서는 올해 청년수당 참여자의 사례 발표가 진행된다. 우수 참여자 중 2명이 사업 참여를 통해 경험한 변화와 성취를 중심으로 청년수당 참여 소감 등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2019~2022년 청년수당 참여자들이 패널로 참여하는 토크콘서트는 라디오 사연을 소개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청년수당 기참여 패널은 수당 지원이 종료된 이후 고민했던 점과 경험 및 생활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한 청년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청년정책 OX퀴즈와 보물찾기 게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고, 밴드 뭉구스 리더 '뭉구'와 싱어송라이터 '예람'의 축하공연도 준비되어 있다.

공유회에 참여한 청년수당 참여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자신만의 길을 찾기 위해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서

로 공감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서울 청년센터(관악, 금천)와 커뮤니티 전문가가 참여자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담당한다.

행사장에는 청년수당을 통한 변화, 성취를 주제로 한 수기공모 당선작품(글, 그림)이 전시된다. 또한 방문자들은 1년 후 나에게 보내는 응원 메시지를 남기고, 셀프 사진을 촬영하는 참여형 전시도 체험해 볼 수 있다.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행사 참여 희망자는 온라인으로 사전 접수했으나, 부득이하게 사전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행사 당일 방문 접수 및 참여도 가능하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서울 청년수당은 최초 사업이 시행된 '16년과 비교했을 때 정책 환경도 크게 변했고, 청년수당 자체도 사업 내용과 규모가 많이 달라진 상황”이라며, “더 의미있는 제도로 전환의 기로에 있는 청년수당이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안겨주는 정책 씨앗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 구미시 시민이 선택한 올해 최고의 뉴스...1위는 반도체특화단지 유치

## '반도체소재·부품 특화단지'유치가 2023년 구미시 10대 뉴스 1위로 선정됐다.

구미시는 2023년 주요시정 30개에 대해 대시민 투표\*를 진행한 결과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2위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에 이어 '구미라면축제', '구미푸드페스티벌' 개최가 3위, 4위를 차지했으며, '금오산 대주차장 부분 무료 개방'이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365 소아청소년 진료센터 운영 활성화△낙동강 체육공원 매점 설치 및 공중화장실 개선 △구미시민 간편 확인 서비스 도입△북구미IC~군위JC 간 고속도로 건설 사전타당성 조사 착수△기업투자 2조 1,459억원('23.10월 기준)이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시민이 뽑은 '2023년 구미시 10대 뉴스' 1위~10위를 살펴보면,

총 7,873표(1인당 최대 10개 선택) 중 678표(8.6%)를 얻은 1위 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 유치는 국가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지정을 받기 위해 전국 지자체가 치열한 유치를 펼친 가운데 비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선정, 모두의 기대를 뛰어넘는 구미의 저력과 위상을 확인하며 시민들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성과로 선정됐다.

이어 2020년, 2022년 연이은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방산 혁신클러스터\* 유치'가 총 576표를 얻어 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7월부터 철거된 폐인 분석과 전략 재정비를 통해 포기하지 않고 재도전한 끝에 마침내 성공, 미래 신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K-방위산업이 지역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3위인 '구미라면축제 개최'(485표, 6.2%)는 지역최초 도심형 축제로 기획하고 접근성을 높인 결과, 축제 기간 유명 인플루언서는 물론 전국 각지에서 10만 명이 찾아 구미만의 이색축제를 즐겼다. 이로써 전년 대비 축제 방문객이 566% 증가\*하고, 인근 상점들은 오랫동안 북적이는 사람들로 활기를 되찾으면서 축제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원도심 상권 부활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역대 최다, 역대 최고의 기록을 경신한 '2023년 구미푸드페스티벌'(484표, 6.1%)이 근소한 차이로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2회째 개최한 구미푸드페스티벌에는 15만 명이라는 구미시 축제 사상 최다인원이 몰렸으며, 참여업소 총매출 3억 8천만 원이라는 기록을 달성하면서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시너지효

과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5위는 사시사철 전국 명소인 금오산의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한 '금오산대주차장 부분\* 무료 개방'(449표, 5.7%)이 차지하며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반영됐다.

6위인 '365 소아청소년 진료센터 운영 활성화'(410표, 5.2%)는 2023년 1월부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상시진료센터를 가동한 이래로 이용 아동 7,246명('23.10월 기준) 중 타 지역 아동의 이용률이 32.6%\*를 차지할 정도로 경북 중서부권 아동 필수진료거점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시민들에게 꾸준한 지지를 얻고 있다.

다음으로 '낙동강체육공원 매점 설치 및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이 401표(5.1%)를 얻으며 그 뒤를 이었다. 올해 7월 매점 설치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재래식 화장실 전면 철거, 현대식 화장실 4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그동안 지역을 대표하는 여가 공간이라는 사실이 무색할 만큼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갖고 있었던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8위 '구미시민 간편 확인 서비스 도입'(345표, 4.4%)은 번거로운 증빙자료 없이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구미 시민임을 인증하고 농치기 쉬운 각종 구미시민 우대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이 역시 생활 체감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알 수 있었다.

9위로는 '북구미IC~군위JC 간 고속도로 건설\* 사전타당성 조사 착수'(335표, 4.3%)가 선정됐다. 이는 국토부 등 관계기관을 수차례 방문·건의한 결과로 신공항 연계 도로망 연결을 통한 항공물류수송 편의성 확보와 구미 입주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공항 연계 도로망구축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른 시민들의 기대를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10위는 '기업투자 2조 1,459억 원('23.10월 기준)'이 4.1%(323표)를 차지해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지역 경제 활력도의 바로미터의 역할을 하며 지역 경제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올해 시민이 원하는 변화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한 결과, 사소한 것부터 큰 성과까지 시민의 다양한 평가와 관심을 확인하는 좋은 계기였다”며, “특히 10대 뉴스 목록간 득표수 차이가 근소한 것은 주요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고른 만족도를 알 수 있어 고무적이고, 2024년에도 시민이 원하는 변화를 위해 혁신은 계속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김동현/기자

**남원시 · 전북대학교**

## 전북대 글로벌대학30 선정

# 폐교 서남대가

# 전북대 남원 글로벌캠퍼스로

# 다시 태어납니다!



역사를 품은 도시  
미래를 앞서는 경주

#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된 도시 경주 미래원전, 신해양 르네상스 도약!

## 2025년 APEC 정상회의

지역균형발전  
APEC 소규모 성장가치 실현  
최적도시 경주



생산 유발 **2조 원**  
부가가치 유발  
**5536억 원**

## SMR(소형모듈원자로) 국가산단 2030년 완공

문무대왕과학연구소 등  
풍부한 원전 인프라와 함께  
글로벌 원자력 산업거점 도약



경제효과  
**7조8082억 원**  
고용효과  
**2만8178명**

## 동남권 해양레저 관광 거점사업

해양레저 지원센터·레저체험센터  
용오름길·고라섬포장·나정 수상 레저 체험장  
문무대왕 해양조각공원·만파식적 공원



감포 나정고운모래 해역  
**7만7820㎡**  
총사업비 **490억 원**  
신라오션킹덤 조성

